

안팎으로 너무 힘들었던 2020년이 그 마지막 달을 지나고 있지만 아직 그 어려움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가는 우리 인생길을 확신하며 더욱 주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0년 12월 12일 (토) 제 1805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CT, 유버전/게이트웨이 성경 앱 2020년 가장 많이 읽은 성경구절 발표

코로나19라는 암울한 그림자가 전 세계를 뒤덮은 가장 힘든 시기에 사람들은 성경에서 위로와 힘을 얻었다. 한마디로, 격동의 한해 가운데 정말 기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과 격려와 희망의 원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믿음으로 두려움과 싸워 나가고 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성경읽기 앱인 유버전(YouVersion)과 성경 게이트웨이(Bible Gateway) 웹사이트는 2020년 한 해

동안 특별히 두려움, 치유, 평화 등의 용어에 대한 성경 검색이 그 어느 해보다 많았다고 게재했다.

‘YouVersion’은 “2020년에만 전체 검색이 80% 증가해 전 세계적으로 약 6억건의 검색을 기록했다”고 했고 그 중에 “이사야 41장 10절은 앱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고, 읽고, 북마크 된 구절로 선정됐다”고 밝혔다(2020’s Most-Read Bible Verse: ‘Do Not Fear’).

이사야 41장 10절은 앱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고, 읽고, 북마크 된 구절로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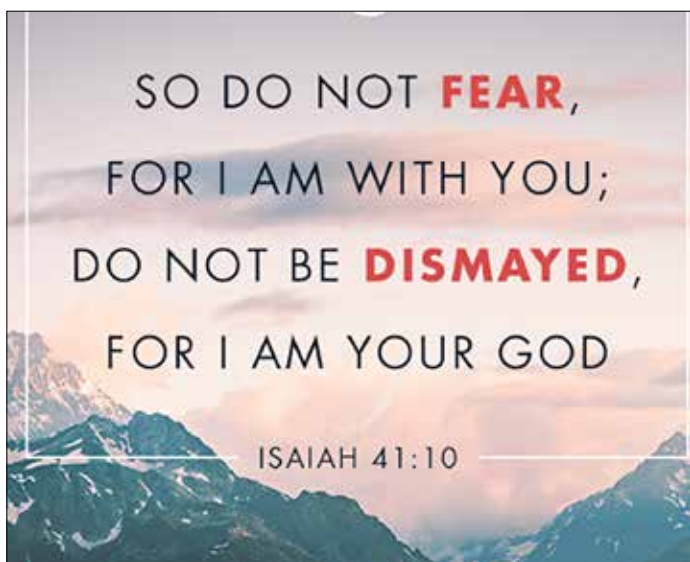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YouVersion’의 설립자인 바비 구르네발드(Bobby Gruenewald)는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힘, 평화, 희망을 위해 성경을 찾습니다. “2020년은 많은 사람들이 있고 싶다고 말하는 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앱을 사용해 답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기억하는 해로 봅니다.”

또한 주요 사건과 관련해 성경 검색이 급증했다. 올해 초 몇 달 동안 ‘공포’가 앱의 상위 검색어, 봄에는 ‘정의’, 그리고 1년 내내 ‘치유’가 검색어로 가장 많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Bible Gateway사이트 역시 유사한 검색 경향을 보였다. 3월에 미국 COVID-19 봉쇄가 시작됐을 때 하나님이 질병을 없애는 것에 대한 유행성 관련 구절은 평균보다 약 90배 더 많은 인터넷 초당 접속 수를 나타냈다.

이사야 41:10... ‘치유’‘두려움’정의 검색 기록적



이 사이트는 또한 인종차별, 정의, 억압과 관련된 검색어가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다음 주 평균의 100배로 급증했으며, 정부 권위와 관련된 구절이 선거일 평균보다 50배 이상 증가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예레미야 29장 11절이 지난 몇해 동안 검색된 것처럼, 성경 검색에서 가장 높은 구절 순위를 차지한 반면, 역대기하 7장 14절은 3위까지 급상승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

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구절은 일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기도문에서 인용됐으며, 2016년 선거 당시 가장 많이 검색된 구절이었다.

Bible Gateway에서 “두려움”과 “두려워하지 말라”에 대한 검색은 작년에 비해 증가했으며, 가장 인기 있는 영어키워드 검색에서 “두려움”이 6위를 차지했다.

올해와 2018년 모두 성경 앱의 전 세계 최고 구절인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사야의 확신

은 미국,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덜란드, 필리핀에서 1위에 올랐다. 가나에서는 가장 많이 찾은 구절은 빌립보서 4장 6-8절(“염려하지 마십시오...”)이고, 케냐에서는 로마서 8장 28절(“모든 일에 하나님이 선을 위해 일하십니다...”)이다. 두 국가 모두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 중 하나였으며, 2020년에 앱에서 전체 성경 읽기가 급증해 작년에 비해 1/3 이상 증가했다. YouVersion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에서는 성경 참여가 61%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동일 앱은 2020년에 읽은 성경의 436억 장을 추적했고 5억 구절을 공유했으며 기록상 가장 높은 기록을 세웠다.

성경 독자 수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COVID-19로 인한 감소가 나타났음에도 앱을 통해 꾸준히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보였다.

미국성경공회(ABS) 설문조사에 2020년 성경 헌장 보고서에 따르면 매일 성경 사용자의 비율이 전년 초 14%에서 6월에 8.5%로 떨어졌다. ABS에 따르면 성경 독자의 65%가 디지털보다 인쇄된 성경을 읽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미 하원, 대마초 합법화 법안 통과

HuffPost, 상원통과 가능성 낮지만 마리화나에 대한 여론 변화 상징

미 연방하원이 지난 4일 마리화나(대마초) 비범죄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회가 마리화나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금지를 종식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진보적인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은 찬성 228표 반대 164표로 ‘마리화나 기회재투자 및 기록말소(MORE)법’을 통과시켰다. 마리화나를 비범죄화 하고 관련 범죄 기록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날 법안 통과는 대체로 상징적인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 표결은 한 때 환각물질로 취급됐던 마리화나에 대한 여론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마리화나는 미국 15개주에서 합법화 됐고, 여론조사를 보면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마리화나 비범죄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House Passes Historic Marijuana Decriminalization Bill : Though considered to be a largely symbolic move, it nevertheless marks the first time a chamber of Congress has voted to end the federal prohibition of marijuana).

“나머지 미국인들의(여론) 공화당에서는 찬성 5표가 나왔다. 따라갈 필요가 있다.” 법안을 공동 마리화나는 1970년 연방마약으로 발의한 알 블루머나워 하원 정책에 따라 통제물질로 규정돼 의원(민주당, 오리건)이 밝혔다.

하원은 찬성 228표 반대 164표로 마리화나 비범죄화법을 통과 시켰다. 민주당에서는 반대 6표가, (3면으로 계속)



발행인 김성국 목사

2면



시론 최혜근 목사

3면



푸른초장 김성일 목사

4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생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기독교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jcbook.org / jc@j101@hugmail.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J.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응시자격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 Div 학위를 졸업 하였거나 2021년 6월 30일 이전(30일 포함) 졸업 예정자로 개혁신학의 신앙의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 분.

고시과목

- a) 필기고시: (1) 교회사 (2) 조직신학 (3) 미국장로교회사 (4) 헌법 (이상 4과목)
- b) 제술고시: (1) 구약주해 (2) 신약주해 (3) 논문 (4) 설교원고 (이상 4편)

- 제술 고시 내용**
- (1) 구약주해 : 창22:1-19
 - (2) 신약주해 : 마5:1-12
 - (3) 논문제출 : 온라인 예배에 대한 개혁주의 견해를 논하라
 - (4) 설교원고 : 마5:7-11 / 마8:11-14
 - 설교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 할 것.
 - 고시 기간 중 설교실기고시를 치름.
 - (5) 제술 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 *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부는 PDF 파일로 서에게 이메일 할 것.
 - 레터 (8-1/2" x 11") 용지를 사용 할 것.
 - 한글 11호 크기의 폰트 사용, 줄 간격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호 Double Space)
 - 논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결장과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10매 정도).
 -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 할 것.
 -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이름에 본인이름 및 과목 주해 이름 사용 할 것. (예: 조성훈구약주해.pdf)
 - 파일이 너무 크면 나누어서 이메일로 보낼 것.

c) 면접고시

서류제출요령

- a)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술고시 과목 원고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21년 3월31일 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 b)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c) 합격자 발표는 45회 총회기간(5월 18일-21일) 중에 총회 석상에서 합격자 발표와 합격 증명 수여함.

고시일자 및 장소

- a) 일자: 2021년 5월 11(화) - 12(수)
- b) 장소:
 - 동부: 퀸즈장로교회(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김성국 목사)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 서부: 대홍장로교회(Dae Hong Korean Church, 권영국 목사) 15411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응시서류

- a)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21년 6월 30일 이전(30일 포함) 졸업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 b) 신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
- c)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 d) 소속노회 목사후보승 증명서 1부
- e) 이력서(양력과 자세한 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 년도와 교회, 세례집행자) 1부
- f) 명함판 사진 2장
- g) 고시료: \$100 (USD) Pay to the order of - KAPC

참고사항

- a)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송일용 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월 11일-12일 총회고시장소) 중에 사용할 속소를 예약 할 것.
- b)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 (2)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 바꾸지 말 것. 허락 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 당함.
 -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 할 것.

제출처

고시부서기 : 송일용 목사 (Rev. John Y. Song)
주소 : 1641 W. 185th St. Gardena, CA 90248
전화 : (818.282.0112) / 이메일 kappcpastor@gmail.com

기타문의

- a) 고시부 부장 : 김재호 목사 (Rev. Kim Jae Ho) ezrakim59@gmail.com (C) 646.270.5987
- b) 고시부 서기 : 송일용 목사 (Rev. John Y. Song) kappcpastor@gmail.com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회장 : 조문휘 목사
서기 : 이준우 목사
고시부부장 : 김재호 목사
고시부서기 : 송일용 목사

발행인 칼럼

크리스마스와 옛장수



김성국 목사
(켄츠장로교회 담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이야기가 한국의 흥길동전에 나온다. 비극적인 이야기이다. 그보다 더 비극적인 이야기가 미국에도 있었다.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 부르지 못하고 홀리데이라고 부르고 강요받았었다. 카드도 Merry Christmas보다 Happy Holiday라는 이름으로 잔뜩 만들어져 있었고 쇼핑몰마다 성탄절이 홀리데이라는 이름으로 장식되어 있곤 했다. 진정 그렇게 부름이 특정종교만 즐기는 날이 아니라 모든 인종이 즐겁게 보내자는 정치가들이 알량한 배려였던가.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홀리데이라는 이상한 단어와 바꿀 수 없다.

사실 나도 그 노래를 좋아했다.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감미로운 노랫말과 멜로디에 속 빠져 매년마다 성탄절에 눈이 왔으면 하고 얼마나 바랬던가. 크리스마스에 눈이 와서 온 세상이 하얗게 되고 나의 일 년 동안의 더러움 덮이고 또 예쁜 여학생과 아무도 건지 않은 눈길 위로 뾰드득 뾰드득 첫 발자국 소리를 내며 걷고 또 걸어보길 꿈꾸었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하얀 눈의 꿈과 바꿀 수 없다.

크리스마스에는 정말이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믿고 싶었고 그가 가져올 선물을 생각해 보기도 했다. 루돌프 사슴이 끄는 마차를 타고 착한 아이들을 찾아 선물을 준다는 이야기에 성탄절 며칠 전부터는 착하게 살려고 애쓰기도 하지 않았던가.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선물이야기도 가슴에 저렸다. 크리스마스가 다가 오자 가난한 부부가 서로에게 선물을 사주려고 했다. 아내는 남편에게 시계가 있는데 시계 줄이 없기에 시계 줄을 선물하려고 했다. 남편은 아내의 아름다운 긴 머리를 빗을 머리빗이 없기에 그것을 사주려고 했다. 아내는 머리칼을 잘라 팔아 남편의 시계 줄을 샀고, 남편은 자기의 시계를 팔아 아내의 머리빗을 샀다. 그 날 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저녁을 먹는 이야기로 마무리 되는 오 헨리의 작품은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곤 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그 어떤 비싸고 멋진 선물과 바꿀 수 없다.

매년 크리스마스 전후로 맨해튼 록펠러센터 앞에는 크고 화려한 크리스마스트리가 번쩍인다. 팬데믹 때도 예외는 없다. 우리 동네에서도 벌써부터 볼 수 있었는데 몇 집 건너 어느 집 앞의 성탄트리는 그 집 앞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온 세상의 다른 집, 상점, 여러 빌딩 앞에서도 볼 수 있다. 밖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당 안에도 우리 집 안에도 2020년 성탄트리가 세워졌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어떤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탄트리와도 바꿀 수 없다.

크리스마스에 간과할 수 없는 풍경은 구세군 자선냄비를 앞에 놓고 딸랑딸랑 종을 치는 모습일 것이다. 그 소리를 쫓아가 이웃을 돕는 마음을 담은 것은 아름답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를 구제하는 날로 바꿀 수 없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비장(悲壯)한 날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전무후무(前無後無) 날이다. 구원이라는 인류 최대의 소망(所望)이 임한 날이다. '옛장수 맘대로' 라는 말이 있다. 어느 누구도 고귀한 크리스마스를 옛장수가 맘대로 옛을 바꾸어주듯 다른 것과 함부로 바꿀 수 없다. 물론 우리도 자기 맘대로 옛을 잘라주는 옛장수 같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는 안 된다

“뉴노멀” 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touch!

Aeon, 인간 신체적 접촉 전문연구자 라우라 크루시아넬리에게 듣는 “촉감” 의 필요성(하)

많은 뇌과학자와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사회적, 감정적 촉감의 인식을 위해 일반적인 촉감과 다른 특별한 인식경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경로를 통해 우리는 애정이 담긴 접촉을 인식한 후 자신의 신체를 인식하는 부위인 뇌섬엽(insula)에 이를 전달한다. 이러한 애정이 담긴 접촉 또한 아기의 인지적 사회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4개월 된 아기들을 대상으로 한 한 연구는, 아기들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을 때 아기들이 사람의 얼굴을 더 잘 기억한다는 것을 보였다. 즉, 그리고 애정이 담긴 촉감은 얼굴과 같은 사회적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어린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신체적 접촉은 양 뿐만 아니라 질도 중요하다. 최근 우리는 12개월 된 유아는 어머니의 신체적 접촉이 갖는 의미

과의 접촉을 통해 신체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다. 또, 매일 매일 이 접촉을 이용해 자신의 감정을 전달한다. 자신이 두려운지, 행복한지, 사랑에 빠졌는지, 슬픈지, 그리고 성적으로 흥분했는지를 상대에게 이야기한다. 우리는 상대가 사용하는 신체적 접촉을 통해 그가 어떤 의도와 감정을 가졌는지를 매우 잘 읽어낸다.

우리는 사람들을 실험실로 초청해 실험자가 신체적 접촉을 통해 어떤 감정과 의도를 전달하려 했는지를 평가하고

신감과 자신의 능력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나는 이 사람에게 일을 맡길 정도로 이 사람을 신뢰하는 걸까?” “이 사람에게 우리 애를 맡길 수 있을까?”

악수를 강하게 하는 것이 면접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인 연구도 있다. 이는 악수가 상대와 신체적으로 만나는 첫 순간이기 때문일 수 있다. 악수는 또한 동의, 계약, 서명의 역할을 한다. 신체적 접촉이 본질적으로

우리는 거식증 환자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이 질병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했다. 두 건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거식증을 가진 이들은 자신의 팔에 부드러운 단일 자극이 주어졌을 때 정상인에 비해 즐거움을 덜 느낀다는 것을 보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거식증에서 회복된 이들도 여전히 신체적 접촉에서 일반인에 비해 즐거움을 덜 느꼈다는 것이다. 이는 신체적 접촉을 즐겁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특징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보다 타당한 특징이며 이 특징이 거식증과 관련이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외에도 신체적 접촉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보여주는 수많은 연구들이 있다. 곧, 인간은 행복을 위해 접촉을 필요로 한다.

그럼 신체적 접촉이 금기가 된 이 시기가 인간의 접촉본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신체접촉 통해 신체 언어 배우고 자신의 감정 전달 권력관계 설정 역할도... 잃을 경우 큰 대가 치러야

를 이해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이 실험이 모자간의 신체적 접촉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때문에 그들 사이의 자연스러운 접촉 방식을 관찰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들을 관찰하면서 두 사람이 신체적 접촉의 형태로 서로의 필요를 전달한다는 것을 관찰했다. 예를 들어, 아이에게 덜 관심을 보이는 어머니들은 아이에게 다소 거칠거나 제한적인 신체적 접촉을 했고, 아이들은 이에 대응 하듯 어머니에게 더 공격적인 방식으로 접촉을 시도했다.

즉, 신체적 접촉이 하나의 언어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 마치 언어를 배우듯 사랑하는 이들

를 했다. 이 접촉은 어머니와 아기 사이에, 혹은 연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리게, 또는 모르는 이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거칠게 주어졌다. 사람들은 느린, 애정을 담은 접촉에서 사랑을 읽은 반면, 빠른 접촉에서는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특히, 뇌섬엽에 손상을 입은 이들은 접촉의 의미를 잘 읽어내지 못했다. 이는 피부에서 뇌로 이어지는 특별한 감각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신체적 접촉에는 의사소통의 용도 외에도 권력관계를 설정하는 역할도 있다. 서구의 전문직 사람들은 종종 첫 만남에서 악수를 할 때 손에 일정한 힘을 준다. 이 악수는 자

가지고 있는 위험과 취약성이 바로 이런 사회적 관계를 맺게 하는 기능으로 이어진 것이다. 실제로 악수는 두 사람이 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고 한다.

이 신체적 접촉의 언어는 일생동안 우리가 자신의 몸과 자신을 연결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심리적 안정감에도 매우 큰 역할을 한다. 우리는 다른 일련의 연구를 통해 거식증에 걸린 이들이 애정을 받아들이는지를 조사했다. 거식증이란 섭식장애의 하나로 자신의 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그 결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회피하는 증상을 말한다.

까? 사실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인간에게 타인과의 접촉이 더 필요한 시기이다. 사회적 접촉에 대한 모든 연구 결과는 인간이 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때로 신체적 접촉이 위험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를 전적으로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코로나19는 신체적 접촉이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타인에 대한 공포, 감염에 대한 공포, 신체적 접촉에 대한 공포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 일상적으로 이뤄지던 친구들과의 포옹이나 악수, 등을 토닥이는 행동 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물리적 거리두기는 우리 피부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셈이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나면 가장 하고 싶은 행동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꼭 껴안는 것'을 이야기한다.

(3면으로 계속)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마장암, 식도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감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직검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췌신 특수염류떡 비디오 내시경 시술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진료인내: -치아(식)임플란트, -구강외과 및 비, -보철치과, -미용성형지과, -신경 및 잇몸치료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대표)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대표)
Fax: (718)886-0074(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18, July 4, and Nov 28.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a kids book about CHANGE

kids books that matter.

Ages 5+

Unknown Adaptability Courage Patience

What's Inside
Change is impossible to avoid because it happens ALL the time! In this book, the author speaks on how to cope with and embrace life's changes by recounting personal stories and asking kids pointed questions. Empathetic and encouraging, this book emphasizes talking through life's many changes with the people you care about and trust.

About the Author
David Kim was born in Seoul, Korea, but is now pastoring in Silicon Valley where there is constant change! And as a husband and father of two young girls, he is still learning to navigate change with them every day! You can find him @davidjanghyunkim on instagram and davidjanghyunkim.com.

akidsbookabout.com
Designed in Portland, Oregon
A Kids Book About, Inc

저자: 데이비드 김(웹사이트 주소)
구입문의: 웹사이트 akidsbookabout.com 단체주문서 할인

“이민자의 자녀로, 청년 목회자로 사는 저자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주는 메시지... 그러나 어른들에게도 변화는 필요하다!”

한인 이민자의 자녀로서 지금은 미국 교회 목회자로 사역하는 저자가 삶의 큰 변화의 현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는지 그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변화를 겪는 모든 어린이를 위한 책이며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기에 너무 적절한 책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2020년에 가장 좋아하는 책 중의 하나로 선정)

a kids book about CHANGE by David Kim

미 하원, 대마초...

(1면에서 계속) 하지만 주 정부들은 저마다 법을 만들었다. 연방정부 금지안이 있지만 미국인 3명 중 1명은 현재 성인의 기호용 또는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인 주에 살고 있다.

지금까지 15개 주를 비롯해 컬럼비아 특별구는 21세 이상이 마리화나를 오락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투표법이나 발의안을 통과시켰다.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곳은 38개 주에 이른다. 지난달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3분의 2 이상이 마리화나 사용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방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마리화나 합법화를 인종 차별 문제로도 보고 있다. 대마초 소지로 연방법에 걸려 범죄자가 된 이들 상당수가 유색인종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조사결과, 약물사용비율이 비슷했음에

도 흑인들은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체포될 가능성이 백인들보다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법안에는 마리화나 관련 범죄 기록을 삭제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마리화나 범죄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방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5%의 마리화나 소비세를



부과해 "마약과의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직업교육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담겼다. 하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들 중 대부분은 흑인과 아시아인 등 소

수인종이다. "마리화나 금지법의 계속된 집행은 연간 60만건 넘는 체포로 이어졌고, 인구상으로는 (마리화나) 사용 비율이 비슷함에도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체포될 확률이 백인보다 4배 가까이 높은 유색인종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하원이 밝혔다.

"마리화나 소지 경범죄가 경찰폭력으로 번지는 일

가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3세대에 걸친 흑인 및 황인 청년들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리화나 금지법과 차별적인 법 집행으로 소수인종의 "삶이 무너지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에서 이 법안이 "그 재앙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치 매크널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는 이 법안을 일축한 바 있다. 민주당이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지원법안 협상에서 주의를 돌리기 위해 이 '하찮은' 법안에 매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단순히 마리화나 비범죄화를 넘어서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가혹한 마리화나 (금지)법은 인종 간 불평등의 한 원인이 됐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밝혔다. "하원이 방금 마리화나에 대한 연방 차원의 금지를 마침내 종식시키고, 형사사법개혁을 진전시키고, 동등한 경제적 기회 조성에 기여할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 너무 자주 발생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마리화나 금지법에 대한 선택적인 집행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문제가 되고 말았다." 블룸버나워 의원은 의회

뉴노멀"에 가장...

(2면에서 계속)

신체적 접촉의 중요성은 우리의 표현 속에도 들어있다. 계속 연락을 취하자(keep in touch)는 말과 당신의 친철에 감동받았다는(touched by your kind gesture) 말에도 접촉을 의미하는 단어가 들어간다. 어떤 이들은 기술이 타인과의 새로운 물리적 접촉방식, 곧 담요를 꺼안거나, 화면에 키스를 하거나, 전자기기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등의 행동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런던대학은 '종아리'나 소셜 네트워크에서 감정적 표현을 의미하는 이모티콘으로 질감이나 물질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먼 곳에 있는 두 사람이 서로의 촉감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전자기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내게 자신의 존재를 느끼게 하고 싶을 때 내가 가진 기기가 따뜻하고 부드러워지며, 반대

로 나의 존재를 필요로 할 때는 차갑고 거칠어지는 그런 기기를 생각할 수 있다.

이 기기는 매우 다양한 용도를 가질 것이다. 신체적 접촉이 부족한 노인들, 혼자 사는 이들, 그리고 고아원의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오늘날 혼자 사는 사람의 비율은 15%에 이르며, 고독사의 비율 또한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촉감을 제공함으로써 이런 현실을 바꿀 수 있다.

물론 이런 기기는 진짜 접촉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누군가와 육체적

접촉을 통한 친밀감은 후각이나 청각, 상대의 체온 등 다른 감각과 함께 자극되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비할 수 없는 자극이다. 신체적 접촉은 바로 여기, 바로 옆을 의미하며, '우리는 지금 여기에 함께 가까이 있다'를 말해준다.

오늘날 촉각 외의 다른 감각은 쉽게 디지털화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상대의 얼

수는 없기 때문에 디지털화된 촉감은 진짜 포옹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신체적 접촉의 르네상스"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바보 같은 일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과학적 실험결과들도 이런 내 생각을 지지한다. 신체적 접촉을 잃을 경우 인간은 커다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인간이 가진 가장 섬세한 언어인 동시에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으며, 원래 갖고 있던 것까지도 잃어가고 있다.

인간은 신체적 접촉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이후 "뉴노멀"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뒤야 할 사실이다. 서로 꺼안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다. 과학자이자 인류의 일원으로서, 나는 접촉의 권리를 주장하며 누구도 접촉에 굶주리지 않는 세상을 꿈꾼다.

굴을 보기 위해서는 좀을 키면 된다. 하지만 신체적 접촉은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 필요로 한다. 실사 촉감이 디지털화 되더라도 이 공간과 시간의 감각을 만들



시론

선거철을 보내면서...



최해근 목사 (공교대교회)

매년 11월은 다양한 선거가 있고 더군다나 올해는 대통령 선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서 후보자로 나선 분들을 지지하거나 응원하는 친구나 이웃을 보게 됩니다. 특정 후보자의 캠프에서 일하면서 후보자와의 친분을 은근히 드러내어 자신이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고위공직자를 친구나 친척으로 둔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특권층에 대한 그리움의 후유증이라고나 할까요. 먼 타국에 새로운 문화권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이전에 살았던 그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특권층, 즉 권력의 중심에서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신앙인의 건강한 자세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하며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권력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느브갓네살의 후손이었던 벨사살 왕이 왕후와 후궁들 그리고 귀족들을 위해 특별히 배운 연회식 상에서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글을 쓰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글의 의미를 알기 위해 다니엘이 왕에게 소개됩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 앞에서 권력에 대한 가장 깔끔하고 간단한 정의를 내립니다. 그 내용인즉 '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데 그렇게 주어진 것이 바로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력자가 특별히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앉힐 수가 있고 동시에 그 자리에서 쫓아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권력자들에게는 더 많은 고민과 생각과 의미를 부여하시고 평범한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비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우리 주님의 행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에서 돌아가신 후 삼일째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모르고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 천사들이 일러 줍니다. 주님은 부활하시었고 갈릴리로 가실 테니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안내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시는 것일까요?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헤롯궁궐이나 권력자들의 저택, 혹은 빌라도 총독의 관사나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앞에 나타나는 것이 훨씬 더 이후에 있을 복음사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변방의 갈릴리 땅으로 발을 옮기십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소망이 보입니다. 주님의 마음 깊은 곳에는 권력자나 그들의 저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자신의 삶을 맡긴 가난하고 평범한 갈릴리 변방의 제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이후에 있을 세계 선교와 복음화의 길을 열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세속적인 권력이나 그 권좌에 앉은 사람들을 특이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 다. 하나님의 관심은 느브갓네살이나 벨사살이 아니라 다니엘이었고 에스라였음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은 바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이 맡기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 쫓고 가난한 사업장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의 자리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권력자에게 지나치게 기대거나 마음을 두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되지 못합니다.

바울은 로마교회에 글을 쓰면서 권력자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가르칩니다. 권력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성경적으로 사용하는 한 그 권력자를 존경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아울러 권력자들에게 주어야 할 것과 받아야 할 것, 즉 세금을 내는 것과 그 혜택을 받는 것이 바르게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신앙인들이라도 권력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가르칩니다. 더 나아가 그 이상 권력에 대해 특별한 옹호나 도움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거철에 자칫하면 눈에 보이는 권력자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권력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권력을 부여하시는 주님의 관점과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담대하고 가치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은 헤롯궁궐이나 빌라도 총독의 관사가 아닌 제자들의 땀 냄새가 나는 땅, 바로 갈릴리였고 가난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삶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thechoi82@yahoo.com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21.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through June 30 of 2020)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Exam Subjects

- a) Written Test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b) Written Assignment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3) Thesis Paper (4) Manuscript of Sermon

- (1) OT Exegesis Text : Genesis 22:1-19 (2) NT Exegesis Text : Matthew 5:1-12
(3) Thesis Topic : Evaluate the "Online Worship Service" from the perspective of Reformed Theology
(4) Sermon Text : James 5:7-11 / Amos 8:11-14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
*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o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o Use 12-point font (Times New Roman), 1-inch margins, double space, use page numbering, proper footnoting, and include bibliography.
o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excluding title page and bibliography.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o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o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eulhan@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o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o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SunghoonChoOTExegesisPaper.pdf)
o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c) Oral Interview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a)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21.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21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b)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c) The results of the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5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18-21, 2021).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announced on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Exam Date and Place

- a) Dates : May 11(Tue)-12(Wed), 2021
b) Place : Eastern Region: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Rev. Seoung Kook Kim)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estern Region: Dae Hwang Korean Church(Rev. David Y. Kwon) 15411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Accompanying Documents

- a)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of Bachelor & M. Div. degree or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through June 30 of 2021.
b)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c)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d)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e) Curriculum Vita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f)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g) Fee: \$100 (USD). Pay to the order of - KAPC

Miscellaneous Information

- a)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11-12, 2021) through Rev. John Y. Song
b)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ination room.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Submit To

Rev. John Y. Song
Address : 1641 W. 185 th St , Gardena CA. 90248
Cell : (818) 282.0112 E-mail : kapcpastor@gmail.com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a) Chair of the Exam Committee
Rev. Kim Jae Ho (646) 270 5987 / ezrakim59@hotmail.com
Clerk of the Exam Committee
Rev. John Y. Song (818) 282.0112 E-mail : kapcpastor@gmail.com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 총회장 : 조문휘 목사
서기 : 이준우 목사
고시부부장 : 김재호 목사
고시부서기 : 송일용 목사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고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어주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취주시고 너의 작은 믿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찌라’... 2020 연말특별새벽부흥회가 시작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작사 작곡가 박성호씨는 달동

네에 살면서 폐결핵을 앓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집안 경제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25세 청년으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그는 자신의 믿음소리를 들으시고 아픔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가 만든 곡이 ‘주만 바라볼찌라’입니다.

고난 가운데 주를 보기가 생각보다 그리 쉽지 않습니다. 주만 바라보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주만 바라보라고 하십니까? 정말 주만 바라보면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문제들이 해결 됩니까?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염려와 걱정을 떨쳐 버릴 수 있습니까? 나에게 당장 필요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질지? 주만 바라보는 것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주를 바라보기 전에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바라봅니다.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과 여건을 바라봅니다. 이것저것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은 다 바라보다가, 더 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비로소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힘으로 해보다가 안 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다가 안 되면 마지막으로 주님을 찾는 우리의 신앙이 문제입니다.

김진선 시인의 ‘하나님은 3등입니다’란 시 제목처럼 항상 주님을 차선책으로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최우선이 아닌 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말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것들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 싱글 포커스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 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는 러시아의 속담처럼 이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응답함을 아시고, 우리가 당하는 수치가 무엇인지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 우리의 용기, 우리의 공급자,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우리의 기쁨, 우리의 미래,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힘이 드십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낙심이 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힘들 때 박성호 형제처럼 주만 바라보십시오. 내 손에 쥘 것이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면 보이지 않던 길도 보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들을 내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새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항상 응원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온전히 바라며 기도하십시오.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새 길을 만드시는 주님’께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푸/른/초/장

김성일 목사

(빅토리아예수마음교회)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히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하에 일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우연히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부인하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세상은 진화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진화되었느냐고 물으면 그들이 꼭 하는 말은 우연히 발생해서 우연히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진화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성취해나가심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화에서 꼭 표현 가운데 ‘재수가 있다’거나 ‘운이 있다’라는 표현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우연히 이루어진다는 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기에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연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있지만, 우연이라는 것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에스더 전체 본문 중에서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선택되기까지 모르드개의 말에 순종을 잘한 것이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사치스럽게 인위적으로 치장하지 않은 모습이나 모르드개가 충성되게 묻지기 역할을 감당하다가 암살자들의 계획을 알고 에스더를 통해 왕에게 고한 것이나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려 궁중일지에 기록된 것들이 다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아하수 예로 왕이 와스디 왕후를 폐하고 4년 동안 독수공방지 내

다가 에스더를 왕후를 취하게 되는 일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섭리가 있음을 봅니다.

아하수에로왕이 통치하는 그 넓은 땅, 왕국 속에서 수많은 처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유대 처녀인 동시에 고아인 에스더가 왕후로 선택되어 이스라엘의 대학살의 위기 앞에서 구원 역사를 베푸시는 일에는 반드시 이루어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식으로 아름다움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에스더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 온 것이기 자원해서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속에 이끌림을 받은 사람은 인위적인 꾸밈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왕후가 되기 위하여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만 하는 어떤 영웅이나 위인의 이야기로 성

계획은 이미 여러 단계를 통해 진행되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개가 왕의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후에 모르드개가 유대인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더 좋은 나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우연히가 아니라 반드시 하신 것입니다. 왕을 해치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고 왕을 죽이고자 하는 반역행위를 모르드개가 눈치 채고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그렇게 함으로써 에스더는 왕의 신임을 더욱 두텁게 받게 되었으며 모르드개의 공로가 왕의 궁중 일지에 기록된 것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연히와 반드시의 대한 표현의 차이는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나 아니냐를 드러내는

하고 부흥하게 되는 역사 속에 서로서로 돌보며 만족할 무렵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보다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이 국한되어 점점 망각해갈 때 해롯 왕과 로마 황제의 핍박 때문에 제자들은 소아시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 일로 반드시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세우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하게 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동안 우리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내 교회, 우리 교회, 우리끼리, 우리가 건축한, 우리가 마련한 것에 집착하여 전 세계를 향

해택이 주어진 것을 보면 어쩌면 비대면의 예배역사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하는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청교도 400주년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팬데믹 상황이 아니었다면 우리끼리 30명에서 5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모임이었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영상으로 모임을 하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미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러한 일이 가능하게 해주는 상황이 지금의 비대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연히가 아닌 반드시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에는 언제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애굽에 노예로 팔려 간 요셉이 바로에 의해 권력자로 세움을 받게 하신 것은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바로 그곳에서 언약의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서 나일강에 흘러가던 가운데 건짐을 받아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하신 것은 히브리 민족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느헤미야가 야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이 되게 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벽과 유대 민족의 재건에 그 목적이 있었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도록 하신 것에는 폐죽음의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던 유대 민족을 대학살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뜻 없이 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는 반드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세우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환경에 대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임을 생각하며 감사하므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법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아무리 당면하게 되는 상황들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항상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연히’가 아닌 ‘반드시’

에스더 2장 12-23절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수많은 메대와 바사 가운데 수많은 처녀 중에서 에스더 한 명을 왕의 아내로, 왕후로 세우시는 역사를 통해 우리는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각지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평가를 거쳐 선택되어 왕후로 왕에게 선택되는 자리에 나아가는 처녀들은 12개월 동안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6개월 동안은 몰락 기쁨으로 몸을 담그고, 나머지 6개월 동안에는 향품과 향수 등으로 몸을 정결케 하는 절차는 왕궁 내시의 지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준비가 다 끝나고 선택의 날이 되어 왕 앞에 나아갈 때, 처녀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든지 갖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금이라도 자신을 왕 앞에서 돋보이게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갈 때 내시에게가 정해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인위적인 꾸밈이나 장

경을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역사서를 읽을 때 유의해야 하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위인전이나 영웅집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하여 그들의 삶을 본받자고 하거나 그들의 신앙을 본받자는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초점이 이 부분에서 혼동되면 성경을 잘못 보는 시각이 형성되어 내 영혼에 전혀 유익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게 됨으로써 모르드개가 왕에 대한 충성이 기록되어 있고 이 기록으로 인해 모르드개를 높여주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학살에서부터 구원하시려는 섭리로서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도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고 반드시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에게 와야만 했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또한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연히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사역을 우연히 되는 대로 하신 것이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게 하였던 것을 성취하시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천국복음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를 베푸시다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임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후 탄생된 교회는 한번 복음을 전할 때 삼천 명 혹은 오천 명씩 회개

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까. 세계 선교를 한다고는 하지만 복음이 상실된 물질 공세와 과시적 사역에만 집중했습니다. 한 영혼의 회심의 열매나 진정한 예배자의 양성보다는 숫자놀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습관적인 종교놀이 중독된 상태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습관적이던 예배 형태는 무너지고 대면예배조차 건강을 위협하는 대면예배를 무리하게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 아래 감시와 간섭 속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조건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등한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주님의 사람들이 옥에 갇히게 되고 옥중서신을 써야만 했던 상황이 바로 비대면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한 결과 서신서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서신서를 글로 직접 볼 수 있는



대장부의 마음

다윗 왕이 죽을 날이 임박하여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라고 말하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긴다. 마지막 생명의 불꽃을 다해 자신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때에 곧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며, 가장 삶에 대해 진실할 수밖에 없는 그 때에 유언을 남긴다. 그의 생애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그렇게 사랑하며 돌보았던 자기 백성들을 그의 손에 맡기며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말을 남긴다. 첫마디가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이다. 원문에서는 '너는 강한 자가 되어라, 그리고 남자가 되어라'는 뜻을 드러낸다. 남년의 차별적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남녀의 구별적인 의미가운데 남자에게 요구되는 특성으로서의 강함을 말하는 것이다.

강하다는 것과 남자라는 의미가 중첩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한마디로 '강해라, 정말 강한 사람이 되어라'는 뜻이다, 다윗 자신의 평범하지 않는 삶, 죽을 고비를 넘기며, 배신과 배반과 생사를 넘나드는 일들을 겪으며, 그렇게 결론되어진 말을 내어놓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표현은 다윗에게 뿐 아니라

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실제 다윗의 외모는 사무엘이나 그의 가족 부모형제마저도 인정할 만한 지도자의 외형이 아니었다. 성경의 영감으로 만들어진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을 보아도 짐작이 간다. 그에 의모는 관심 밖이다. 그러나 성경은 또 그를 아름답다고 표현한다. 무엇이 가장 대장부 수나이다우면서도 아름다울 수 있을까?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터져 나오는 광야의 시와 노래를 통해 능히 짐작이 된다. 상황과 환경을 핑계치 아니하고 마음중심에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몸부림친 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윗은 그런 삶을 살기위해 몸부림을 쳤다. 시편 119편 60절을 보면 다윗은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노라고 고백한다. 시편 119편 101절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급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고도 고백한다. 그렇게 세상 앞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의 순전한 신앙이, 마침내 그를 대장부이면서도 아름답고 흡족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었고, 그러한 과정에서의 맛보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서 부하들의 행위를 방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순간적인 자유와 해방은 맛볼 수 있었는지 몰라도, 그 역시도 자신의 왕권을 칼을 들이대는 부하들을 보게 되었을 런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앞에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과 해석을 다 제거하는 다윗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든 유익을 내려놓고 딱 멈춰서는 현한다. 무엇이 가장 대장부 수나이다우면서도 아름다울 수 있을까?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터져 나오는 광야의 시와 노래를 통해 능히 짐작이 된다. 상황과 환경을 핑계치 아니하고 마음중심에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몸부림친 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윗은 그런 삶을 살기위해 몸부림을 쳤다. 시편 119편 60절을 보면 다윗은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노라고 고백한다. 시편 119편 101절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급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고도 고백한다. 그렇게 세상 앞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의 순전한 신앙이, 마침내 그를 대장부이면서도 아름답고 흡족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었고, 그러한 과정에서의 맛보

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영혼의 양식인 그 말씀을 먹을 때 그 인생은 비로소 생기 넘치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 육신의 것만 구하는 인생을 보라. 반드시 그 영혼이 병들고 아파하게 된다. 그러나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먼저 구하면서, 영적인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영혼의 잠림과 같이 범사에 형통하고 생기 넘치는 복도 허락해주시는 것이다. 40년 광야세상을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결론이면서, 모든 오고가는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대교회)

광야 세상과 영혼의 존귀함

- 육체와 영혼, 말씀과 교회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자녀같이 사랑하는 그 사명의 후계자들에게 주는 말이다. 모세는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가장 귀한 사명 앞에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고 강권했었다.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 속에서 강한 주의 군사가 되라고 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것을 말씀하셨던 흔적이 있다.

말씀을 지키는 순전한 마음

그렇게 다윗이 대장부의 마음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어지는 유언과 연결해보면 뜻이 분명하다. 다름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는 말씀이었다. 오직 여호와와 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라는 것이다. 다윗에게 사나이다움은 무엇인가? 대장부가 누구인가? 남자다움이 무엇인가? 힘세고 튼튼하고, 가슴에 털도 있고, 야심만만하고, 배짱 있는 사람인가?

그런 외형적인 것을 말함이 아니다. 다윗에게 강하고 담대함의 용도 오직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고 살려는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도록 순종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사나이 대장부임을 말하는 것이다. 내면의 심지가 강하고 견고하여

아 경험하였던 아름다운 영적 고백들을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 솔로몬에게도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 속 영혼의 존귀함

광야를 쫓겨 다니며 그는 복마전 같은 인생을 살았다. 그런 세상살이에는 유혹과 좌절이 많다. 그런 세상에서 그를 붙들여준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사울과 같은 인생을 한칼에 죽일 수 있었지만, 그는 두 번이나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해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의 교훈에 충실하였다. 그렇게 자신의 상황과 형편보다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하여, 그는 세상 사람들 보다 더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전혀 결이 다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다윗 자신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었다.

고생하는 부하 장수들의 청을 따라 얼마든지 쉽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도 제거할 수 있었지만, 성경과 다른 급격한 상황윤리에 자신을 방인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끝내 말씀에 순종하였고 이것이 그의 영혼을 존귀하게 만들었다. 그 영혼의 존귀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그를 따르던 부하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들이 대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를 따르던 이들에게 선명하게 전달되었을 것이다. 만약

말씀순종과 행동의 근거

그렇다면 왜 말씀에 대한 강한 순종이 삶의 형통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인간존재의 본질에 연유한다. 하나님께서 흠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다. 이처럼 사람이란 존재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진 인생은 항상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몸을 위해 공급되는 여러 가지 의식주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래서 신 불신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늘 '먹고 살기 바쁘다'는 말로서 자신의 육체적 존재감을 드러낸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한 가지 더 생각한다. 성경대로 믿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사람은 육체를 가진 존재인 동시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돈이 최고다, 인생살이 먹고 살자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렇게 허무적으로 이야기해도 절대 동의할 수가 없다. 사람은 결코 세상의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만족이 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지으신 사람은 육체의 떡만으로 살 수 없고, 영혼의 양식을 필요로 한다.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며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산다. 영혼도 배부르게 먹어야 산다. 그 영혼이 원하는 양식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전에 제대로 말씀전하지 못하였음에 회개하고, 그렇게 이런 저런 과정을 지나도록 교회에 붙잡아 주신 것이 근본적인 복임을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코를 꿰어 붙잡아 두신 것에 감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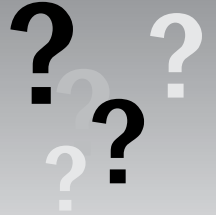
붙들리지 않으면 자기마음대로 하는 인생, 자기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되고 만다. 결코 열매가 좋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리고, 교회에 붙들린 사람, 그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오늘날 어떤 성도는 주일성수할 자유를 달라고, 예배드릴 자유를 달라고 긴장하며 사장과 투쟁을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 시국에 왜 교회에 붙들어 매려고 하느냐? 하면서 저항의 자유를 꿈꾸는 신앙도 있음을 본다. 은혜 받음의 차이이지만 안타까운 상황이다. 코로나가 대수일까?

예수님, 교회, 말씀

예수님께 붙잡히고, 교회에 붙잡히고, 말씀과 사명에 붙잡히는 복을 누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는 인생은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침내 공동체의 화평을 깨고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말한다. 너의 인생 사나이답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절대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온전히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되어라. 왕이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인디언 선교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은 미국의 청교도들과 미국 초기 정착민들이 아메리칸인디언들을 무참히 죽인 역사적인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얼핏 들었는데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하버에서 이희은

A: 청교도들이 미국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병들고 쇠약하여 상륙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이때 이들을 발견한 왓파노아그(wampanoags) 인디언들은 작은 배로 메이플라워호까지 가서 낚시 백인들을 상륙시켰으며 플리머스 마을을 건설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백인들의 출현을 싫어한 인디언 부족도 있었지만 왓파노아그 인디언들은 그들의 공격에서 청교도들을 지켜주었고 옥수수 농사를 가르쳐준 것도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초기 정착에 절대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수확을 거두고 청교도들이 왓파노그 인디언들을 초청하여 만찬을 배분 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 식탁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인들의 감사는 별로 깊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인디언선교 적극적으로...백인들 역사적 죄 회개

백인들은 그 후 2만명의 이민자가 몰려오게 되었고 땅이 협소하여 토지를 점점 확장해 나가고 부유한 나라를 만드는데 박차를 가했지만 정착지를 확장해 나가는 가운데 결국은 기존 왓파노아그 부족의 영역을 파고 들어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정착민들은 왓파노아그 부족에게서 토지를 할당에 사들이기 시작했고 왓파노아그 부족의 중심지 근처에 스완지타운이 건설될 때에는 주둔 영국군들의 무력을 동원한 협박까지 있었습니다. 정착민들은 왓파노아그 인디언 부족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다. 결국 정착민들은 정착지를 늘리기 위하여 인근 부족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1634년 네덜란드 정착민들이 공격당한 것을 빌미로 와핑거족 80여명은 변명도 못해보고 잡자는 도중에 다 학살당했습니다. 그 다음은 1636년 피쿼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피쿼드 부족은 왓파노아그 부족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다. 정착민들과 초기에는 좋은 관계였으나 정착민들의 확장에 점점 밀려 나가면서 대립이 시작되었고 정착민 살해를 빌미로 전투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초기 청교도의 생명의 은인이고 정착을 도와준 왓파노그 인디언 부족과 인디언들과 평화롭게 공존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세월이 흘러 역사를 되돌아볼 때 아쉬움을 가지게 됩니다. 왓파노아그 부족은 61개 부족으로 집단을 이루었지만 후에 질병과 전쟁, 백인 개척자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10만명이 죽고 결국은 5000명만 겨우 살아남았고 멸족하고, 분산되었다고 합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이 미국에 찾아왔다면 자기들을 구해준 인디언들을 생명의 은인인줄 알고 감사하며 계속 좋은 관계를 맺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백인들의 욕심이 결국은 미국의 원주민 인디언들과 전쟁을 하여 수많은 인디언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인들은 원주민인 아메리칸인디언들을 죽인 역사적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인디언들을 잘 돕고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미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인디언들에게 속죄하며 보답하는 차원에서 그 후손들에게 미국의 혜택을 받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적극적인 인디언 선교를 해야 합니다. 인디언 기독교 지도자들도 배출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디언들에게 은혜를 갚고 보답하는 길입니다.

되어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너는 망하게 된다. 이스라엘의 리더인 네가 된다면 온전히 붙잡힐 때, 너의 나라가 형통하고 평안할 것이다. 이것을 마지막 유언으로 가르친다.

어찌 솔로몬뿐이겠는가? 시대를 뛰어넘어, 거친 사막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당부하신다. 교회의 리

더인 주의 종들에게도,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입을 통해 권고하신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혀라. 말씀에 붙들려라. 교회에 매여 살아라. 너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 행동, 평안을 허락하실 것이다."

davidnjeon@yahoo.com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이란의 셈나니(SEMNANI)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75개의 종족 집단으로 나뉘지는 대략 6천7백만 명의 사람들의 고향이다. 이란 인구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종족은 페르시아인으로 이들은 인도-유럽인의 후손이며 기원전 2000년 중앙아시아로부터 왔다. 이란 인구의 나머지는 아제리, 갈라키, 마잔다라니, 쿠르드와 같은 집단으로 구성된다. 아랍, 루리, 발루치, 투르크멘과 같은 집단



도 있다. 전체 인구의 1% 미만인 수많은 다른 집단들도 있다. 11세기 중반 이란은 투굴 백의 셀주크 투르크에 의해 정복당했다. 그 다음 4세기 동안 그곳은 셀주크, 징기스칸의 몽골, 타메틀란과 그의 몽골 유목민들, 그리고 투르크멘에 의해 잇달아 지배받았고 결과적으로 여러 종족집단이 섞이게 됐다. 셈나니인들은 대부분의 이란인들처럼 인도-이란어(또는 쿠사리어라고 불리는)를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어에도 능통하다.

삶의 모습

셈나니의 기원은 불분명하며 그들의 구체적 생활양식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 어쨌든 그들은 기본적으로 소치는 사람들이다. 이란의 절반 이상이 울퉁불퉁한 지대거나 황무지이며, 그 대부분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소금사막이다. 나라 땅의 10분의 1 정도가 농사짓기에 적당하고, 다른 4분의 1은 목초지로 적당하다. 농업용지의 3분의 1 정도 면적은 관개와 하고 대개 사막과 산악 사이의 언덕진 구릉에 있다. 수도 이외의 지역에서의 보건상태는 열악하다. 많은 소규모 도시들과 시골 지역들은 비위생적인 상태와 의료 인력 부족의 부족을 경험한다. 성홍열, 백일해, 폐결핵, 그리고 장티푸스와 같은 전염병이 유행

한다. 유아시아들은 심각한 문제로 국제적 기준이나 중동 기준에 비해 매우 높다. 평균수명은 남녀 모두 약65세다. 이란에서 5년의 초등교육이 의무기는 하나 많은 시골 아이들이 부모의 반대나 시설의 부족으로 학교에 출석하지 못한다. 중등학교체계는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했고 중등교육은 대개 대학수준의 교육을 준비하는 소수의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이란의 문맹률은 높으며, 다른 중동 나라들보다도 열악하다. 이란의 문화는 예술, 문학, 그리고 나라의 사회구조에서 명백히 보여주는 것처럼 이슬람종교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 1979년 혁명 이후 시아파 성직자들은 무슬림 전통의 부활을 위한 것을 이끌었다. 여자들은 더 전통적인 역할로 돌아

가도록 강요받았고, 극장은 닫혔으며, 라디오국은 음악방송이 금지됐다. 사회적 기능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분리가 다시 제도화 됐다. 많은 여자들이 다 시긴 검정색 천으로 머리와 몸을 감싸는 전통적인 차도르를 입었다

신앙

이란의 국경에는 국가 정부보다 그들 개개의 부족에 더욱 충성하는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다. 아랍인들은 남서부지역에 나타난다. 남동부의 발루치, 북동부의 투르크멘, 그리고 서부의 쿠르드는 모두 수니파 무슬림이다. 비록 아제리가 시아파이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이란시아파 성직자들과 갈등을 가졌던 때도 있었다. 어쨌든 그 외에는 그들은

시아파 성직자들과 공통의 주장을 갖고 있다. 이란의 공식적 종교는 인구의 95% 이상이 따르는 이슬람의 한 지류인 시아파다. 가장 성스러운 시아파의 성지 일부가 이란에 있다. 테헤란의 남부에 있는 도시, 쿼(Qum)은 유명한 성지순례장소다.

필요로 하는 것들

셈나니인들은 100% 무슬림이다. 셈나니인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성경을 갖고 있으나, 현재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단체는 없다. 이란은 유감스럽게도 전통적인 선교사역이 닫힌 채로 남아있다. 오직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 닫힌 이 무슬림 국가의 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올해 170만명 복음 받아들였다”

올해 미국에서는 170만 명이 빌리그레이엄전도 협회(BGEA)를 통해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였다고 CBN뉴스 등이 1일 전했다. 170만명은 지난해보다 두 배 증가한 숫자로 코로나19 팬데믹 락다운(봉쇄) 상황에도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증가했다.



BGEA 프랭클린 그레이엄(사진) 대표는 “2020년은 정상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던 해였다. 우리는 팬데믹을 통과하지 못했다. 세계는 이전까지 한 번도 락다운이 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셨고 그들의 눈을 여셨다. 팬데믹은 멈추지 않았지만 복음은 오히려 확산됐다”고 말했다.

미국의 락다운 상황에서도 복음이 확장된 것은 BGEA의 방송 전도, 디지털 선교가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CBN뉴스는 “BGEA의 케이블TV의 확대, 24시간 연결돼있는 ‘가스펠 핫라인’ 런칭 등의 노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분석했다.

그레이엄 대표는 “전에는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듣고 있다. 사람들은 가까이 복음을 들으려 한다. 대중들은 (코로나19로) 두려워하며 무서워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소망을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은 이를 강렬하게 받아들였다. 세상이 거꾸로 될 때 사람들은 (복음을) 더 듣기 원한다”고 말했다.

그레이엄 대표는 그러나 “(미국) 정부의 락다운 조치는 모든 사람에게 쉽지 않았다. 락다운이 연장되면서 사회적 격리와 실업 발생, 경제적 타격, 학업 부족 등을 경험했다”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병자가 아닌 사람들이 자가격리를 당했다. 이 팬데믹은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에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평화와 능력,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가 바꾼 성탄 풍경

미국 성도 3명 중 1명은 올해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조사됐다. 대면예배 참석은 못 해도 성탄절의 의미를 깊이 되짚어보는 성도들은 예년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기독교 여론조사기관 라이프웨이리서치는 최근 미국인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35%는 ‘올해 성탄절에 가족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속하는 ‘50-64세’ ‘65세 이상’ 응답자가 청년 응답자에 비해 가족 방문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성탄예배 참석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항목에 35%는 ‘예년보다 성탄예배에 참석할 가능성이 낮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0%는 예배 참석 가능성이 ‘비슷하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18-34세 응답자, 교단별로는 복음주의 교단 성도가 성탄예

배 참석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고, 학력이 높을수록 예배 참석에 긍정적이었다.

‘예수 탄생에 관한 영적 성찰’을 묻는 항목에는 응답자의 19%가 ‘예전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예전과 비슷할 것’이란 응답은 59%, ‘예전보다 줄 것’이란 응답은 9%를 보였다. 스톡 맥코넬 라이프웨이리서치 대표는 “코로나19가 사람들의 성탄절 기념방식을 바꾸고 있다”며 “올해 성탄절엔 교회가 덜 붐비겠지만 미국인들은 교회가 아닌 개인 공간에서 성탄절의 신앙적 의미를 고찰하는 시기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9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는 ±3.2%다.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전세계 아동 증가”

전 세계의 취약계층 아동들이 코로나19로 가정 폭력 아동노동 조혼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와 유엔기관, NGO 등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제월드비전은 3일부터 양일간 열리는 유엔총회 ‘코로나19’ 특별 세션을 앞두고 지난 1일 단독 부대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국제월드비전이 지난달 발간한 ‘액트 나우 포 칠드런(Act now for children)’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월드비전 앤드루 몰리 국제총재의 기조 발표, 나자트 말라 유엔 사무총장 아동폭력 특별대표의 발표가 진행됐다.

보고서는 지난 4-8월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중동 및 동유럽,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등 전 세계 50개국의 11-17세 395명의 여자 아동, 367명의 남자 아동을 대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아동 중 81%가 코로나19 팬데믹 이래 가정, 지역사회를 비롯해 온라인상에서 가정폭력, 아동노동, 조혼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경험했다. 82%는 교육, 67%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사회적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긍정적인 응답도 87%나 됐다. 아동들은 본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바이러스 확산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의사 결정에 참여, 교육 지원, 가족과 지역사회 지원, 소외계층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몰리 국제총재는 “코로나19로 인한 빈곤 등 간접적 영향은 특히 가장 취약한 아동들을 신체적·정서적 폭력, 성폭력의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정부와 유엔기관, 공여국, NGO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코로나, 반격 시작...러·영·미 백신접종 개시

코로나19 팬데믹을 끝낼 줄 것으로 기대되는 백신 접종이 이번 주 드디어 시작됐다. 러시아는 5일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영국은 8일 투약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백신 승인 다

음 날인 11일을 접종 시작 날짜로 잡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은 이날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70개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가 문을 열고 대규모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일 러시아산 ‘스푸트니크 V’ 백신의 접종을 지시하면서 “며칠 내로 200만회 이상의 접종분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알렉세이 쿠즈네초프 러시아 보건장관 보좌관은 “백신 접종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지만 러시아 국민은 무료로 백신을 제공받는다”고 설명했다.

임신부, 모유 수유 중인 여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18-60세 국민은 백신을 맞을 수 있다. 다만 우선 접종 대상은 전국의 의료진과 교사 등이다.

백신 접종은 예약제로 이뤄졌다. 세르게이 소비야닌 모스크바 시장은 “접종 시작 하루 전인 4일 접종 시스템을 가동한 지 몇 시간 만에 5000명가량이 접종을 예약했다”고 말했다. 러시아군도 모스크바와 별도로 이번 주 임무 수행을 위해 출발할 예정인 해군 함정 병사들에게 스푸트니크 V 접종을 시작했다.

지난 2일 화이자 백신 사용을 승인한 영국은 8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정부가 마련한 지침에 따라 백신은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과 직원에게 가장 먼저 주어지고, 80세 이상 고령층과 보건·의료계 종사자에게 그다음 차례가 돌아간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왕실 소식통을 인용해 엘리자베스 2세(94) 여왕과 남편 필립공(99)도 수 주 안에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데일리메일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작용 우려로 영국 내에서 접종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다”면서 “여왕 부부의 접종 사실이 공개되면 이같은 움직임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8일부터 투약되는 백신의 양은 약 80만회분으로, 영국 내 50개 병원이 접종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NHS는 백신 확보 물량이 늘어나면 더 많은 허브 병원을 지정해 백신 접종에 나설 계획이다. 화이자의 백신은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반도록 돼 있다. 영국은 총 4000만회분의 백신을 주문한 상태다.

미국에선 화이자 백신이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승인을 받는 이날날인 11일부터 백신을 접종한다. 중국으로부터 5000만회분의 백신을 구매한 터키도 11일 백신 접종에 나선다.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대규모 접종을 개시하지만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NYT는 “화이자 백신의 경우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백신은 그렇지 않다”면서 “그러나 중국에선 이미 수십만명이 백신을 접종했다”고 전했다.

“모금 반토막”...美 기부단체들 울상

올해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미국 비영리법인들의 기부금 수익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 반면 식료품·생계비를 요청하는 빈민의 숫자는 1.5배 이상 늘어나 기부단체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미 abc뉴스가 보도했다.



케네스 호더 미국 구세군 총사령관은 “구세군이 올해 제휴한 모든 소매점 앞에 붉은 기부 냄비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호더 사령관은 “전국적으로 소매점 숫자가 줄어들었고, 유동인구 및 후원금도 감소했다. 이로 인해 모금활동이 실패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미 구세군의 당초 목표 모금액은 1억2600만

달러이었다. 하지만 현재 예상 모금액은 그 절반인 6000만 달러 수준이다. 호더 사령관은 “(남은) 6000만 달러를 메울 방법을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빈민가의 어린이들에게 장난감을 기부하는 마린 토이즈 재단은 협력사의 발길이 뚝 끊겼다. 마린 토이즈 재단의 켈리 하디슨 부사장은 “올해에는 전통 깊은 화이트 컬렉션박스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이 많지 않다”면서 “현재 수집된 장난감은 매우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토이즈 재단은 미국 어린이 700만 명에게 약 1800만 개의 장난감을 공급하고 있다. 하디슨 부사장은 “빈곤선에 놓인 어린이는 1550만 명 정도여서 필요한 물량의 절반을 간신히 채우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기부 실적은 저조한데 도움을 요청하는 빈민의 숫자는 크게 늘었다.

미국 최대의 식료품 기부단체(푸드뱅크)인 케이티 피츠제럴드에 따르면 올해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미국인은 약 5000만 명이다. 지난해보다 60%나 증가한 수치다. 이 단체는 미 전역의 푸드뱅크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티 피츠제럴드 최고운영책임자는 “빈민들이 식비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빈민들이 생존에 필수적인 약값, 난방비는 줄일 수 없으니 비교적 덜 급한 식료품 지출을 아낀다는 지적이다. 피츠제럴드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할 사람들이 건강 약화나 실직처럼 나쁜 일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 구세군의 호더 총사령관은 “집세, 식비, 시설 입소를 문의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면서 “올해 크리스마스에 구세군을 찾는 사람이 지난해의 155%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美타임지 표지에 불붙은 설전

미국 타임지가 새로 공개한 신간 표지를 둘러싸고 네티즌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5일 미국 타임지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타임지의 새로운 표지”이라는 문구와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시했다. 공개된 표지 사진은 2020이라는 숫자에 붉은색으로 X 표시가 되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아래엔 “역대 최악의 해”라는 문구가 쓰여있었다.

타임지가 커버에 붉은색 X 표시를 사용한 것은 역대 다섯 번째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된 “타임지가 커버에 붉은색 X를 사용했던 역사”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타임지가 23년 발간 이래 표지에 붉은색 X 표시를 사용한 것은 단 세 차례 뿐이었다. 1945년 아돌프 히틀러의 죽음을 기념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타임지는 이라크 전쟁이 발발한 2003년과 이라크 알카에다 지도자가 사망한 2006년, 그리고 지난 2011년 빈 라덴의 사망 소식에 붉은색 X 표시로 표지를 장식했다.

타임지는 2020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이 같이 표지를 디자인한 것에 대해 “빈 라덴이 사살된 2011년 5월 2일) 어떻게 보면 한 시대의 종말이지만, 테러와의 투쟁이 종말된 것은 아니었다”면서 “2020년도 역사적인 한 해의 결말을 맞이하지만, 이것이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확산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타임지가 공개한 표지 디자인을 두고 감탄을 자아냈다. 표지에 적힌 “역대 최악의 해”라는 문구와 붉은색 X 표시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들은 “이번 세대들은 집에서 넷플릭스 보는 걸 역대 최악의 해라고 하는구나” “홀로코스트 사건을 잊은거냐” “역대 최악의 표지” 등의 댓글을 남기며 비판을 쏟아냈다.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용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11. 김 강(1902-?)

김 강(金剛)은 1902년 10월 5일 평안북도 용천군에서 출생했다. 그는 1921년 감리교 협성신학교에 입학하여 1926년에 졸업했다. 협성신학교를 졸업한지 2년이 되던 1928년 7월 교회를 김 강이 만주주일학교대회에 참석하려고 한국에서 30여 명의 대표단 일행 중 한 사람으로 도미했다. 그 외에 단장에 김관식 목사였고 홍승한 의사, 김태석 교사, 이병선 교사, 장태완 교사, 이원하 교사, 김중수 목사, 허은 교사, 위명호 교사, 김규형 교사, 김내철 교사, 갈홍기 교사, 이교 교사, 박병곤 대학생, 김진국 교사, 차순석 교사, 송필수 교사 등이 있었고, 변성욱 목사와 김준욱 목사는 이미 나성에 도착하여 준비 중이었다. 김 강은 미국에 남아 다이아몬드 김으로도 불렸고, 그는 콜라라도 광산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 사랑하여 오며 정든 고향이 저 왜적에게 막힌 비를 분히 여겨 한편으로는 정당을 조직하고 일반으로는 교회를 세워 피와 땀을 흘려 마른 그 주머니를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바쳐진 그들의 정성으로 오늘날 우리 한인이라 하는 이름이 영영 죽지 않고 살았다 함을 11년 3월 1일에 세계만방에 천지가 진동하도록 발취된 것도 미국계인 우리 동포들과 인도하시는 분들의 희생하신 썩이라. 이 사람이 미주 온 후로 처음에는 우리 아이와 민족에 대하여 낙심천만을 하였음은 미국계인 여러분에게 너무 많이 믿고 기대하였던 까닭이라. 빈 죽을 들고 오신 그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핀 후로는 이것이나 만족하고 감사한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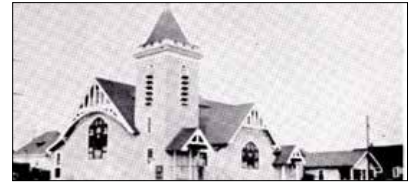
둘째는 덕의와 학문이 겸비하며 신앙과 사랑과 충성이 가득하신 귀하고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심복 중 김중수 목사가 작년 만주 주일학교 대회에 오셨다가 우리 없는 양,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나성 한인을 위하여 우리의 간절한 청원으로 목사가 되신 후로 더욱 모든 교인을 신령과 진리로 인도하시며 덕을 세우기 힘써 나성 장로교회는 더욱 반석 위에 섰으며 일반 직원 일동과 교인들은 마음을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충성으로 하시니 이일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릴 것이며, 감사할 바이다. 이 앞으로 더욱 우리의 우승과 새로운 불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은 우리 지금 예배당은 협소하여 새로이 회당을 건축하려고 경영하는 중 직원 일동과 교인 전체가 없는 것을 있게도 하고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라 하니 저희가 당신의 사랑하시는 팔미세스 스트리트와 미스 월나씨로 하여금 우리의 뜻을 이루도록 하여 주셨다. 이후에 인사 소식 중에 가장 한인과 인연이 깊고 은인이 되시는 이 두 분을 소개하려 한다. 비록 외국인들이나 우리 민족 사랑하기를 골육같이 하시니 이는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크신 사랑이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권을 하에서 영원무궁토록 있을 것이며 만사행통할 것이다.

었다. 이듬해 성탄절을 맞아 나성한인 감리교회 선교부인회는 본 지방에 사는 동포 중 제일 생활이 빈곤한 형제에게 성탄 선물을 보냈다. 불품과 현금을 하신 분은 아래와 같았다. 김 강을 위시하여 선우현, 임준기, 마부인, 임성택, 박은상, 한상호, 김성봉, 손동선, 임매불, 송재운, 임정수, 이민식, 계예스더, 김장만, 허데넷, 한영대, 김엘시, 황성택, 임 풀, 윤 혁, 윤필립, 김신애, 김용성, 이문하, 이석원, 옥은호, 이현리, 함병차, 김제임스, 안켈렌, 윤켈리, 유희중, 김엘리스, 정덕근, 함리차드, 김경호 부인, 명순조, 윤 풀, 김종학, 전그레시, 김해란, 허에스더, 임치호, 김경보, 김필권, 한재명, 정해경, 박영섭, 조병진, 장병훈, 선우현, 이석원, 정동업, 마춘봉, 김진성, 임준기, 함병찬, 송헌주, 황성택, 임치호, 김경보, 김용성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나성한인감리교회 교인이었을 것이다.

를 보겠사오니 우리 교우는 물론이요 고 일반 재류동포들도 많이 참여하기를 바라나이다." 9월의 첫 주일인 4일 주일에는 강설(설교)은 본 교회 전도사 김 강이 담당하였다. 이로써 김 강이 1931년 이후 계속 전도사로 재직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 활동

1939년 5월 1일 하오 8시에 국민총회관 강당에서 순국선현추도회가 있었는데 이날 대리집행위원장에 김 강이었다. 그해 6월 11일 하오 8시에 나성 국민총회관에서 모인 국민회 나성 지방회 전체 대회는 집행위원장 임정수의 사회 하에 총무 김 강, 서기 최은익, 학부 이경선, 구제 이윤경, 감찰위원 광림대의 사면 청원을 결의하였다. 그달 18일 나성 국민총회관에서 모인 국외교과서 편찬위원회는 편찬원과 편찬원 분담 과목을 지정했다. 분담과목은 역사, 지리, 풍속, 수신, 문법, 노래, 동화, 격언, 사적, 체육이었는데 김 강은 이경선과 함께 지리를 맡았고 체육까지 담당했다.



신축 나성한인장로교회 (1545 West 35th Pl Los Angeles)

1938년 7월 21일 자의 신한민보에 게재된 "척사대회에 오시오"에 이어 8월 11일 자 신한민보에는 "잊지 마시오. 웃놀이 대회"라는 광고가 게재되었다. 이튿날 "12일 밤 8시 30분에 국민 총회관 내에서"한다는 내용이었

1941년은 김 강에게 바쁜 해였다. 최대 독립운동 연합단체였던 재미한족연맹위원회가 한족의 급진무는 군사운동으로 인정하고 이 운동의 촉진과 원만한 성공을 위한 때 김 강이 1944년 1월 조선민족혁명당 5인 대표 중 한 사람으로 선출되었다. 그해 삼일절은 3월 1일 하오 8시에 폭풍우가 있어 교통이 불편한 가운데 나성한인장로교회에서 최진하의 개회로 있었는데 김 강이 조선 민족주의라는 제하로 연설하였다. 그해 12월에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는 긴급 시기의 집행부 사무 진행의 편리를 위한 때 김 강은 송헌주, 김용중, 김성택, 임병직, 송헌영과 더불어 임시위원 6인으로 선정하고, 사무과, 재무과, 국방과, 선전과 등 네 과 사무를 분장할 때 김 강은 송준익과 송철과 더불어 재무과에 선임되었다.

만주주일학교대회 대표단으로 1928년 도미, 1931년 나성한인감리교회 지방전도사로 1945년 OSS 입대했으나 1946년 미공산당 가입 혐의로 재판 1955년 추방돼 북한행

나성 한인장로교회

김 강은 나성한인장로교회에 등록했다. 1929년 9월에 오늘날의 예배당이 세워졌으므로 그가 등록할 때 본 교회 예배당은 개재한 사진의 로스앤젤레스 35가 스트리트 1624번지에 있었던 건물이었다. 1929년 9월 5일 자 신한민보는 "나성교회"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했는데 이를 통하여 당시 나성한인장로교회를 엿볼 수 있다.

이 스스로 생겨난다. 혹 무슨 잘못함이 있다하여도 응당 성이 나다가도



나성한인장로교회(1927년-1929년)

일반으로 부끄러운 생각이 된다. 소위 우리 신도 학생이라 하는 이들이 그분들의 충성과 성실한 마음 애국심을 끝까지 받을 수가 있을까 하여 할 수 있으면 우리 배웠다는 유학생들은 아무쪼록 그들이 하신 일을 헛되지 않도록 충성을 다하여 완전히 하여 가는 것이 나의 책임이요 할 바라. 자카하는 나는 우리 민족의 살 길은

완전히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케 함에 있다하여 우리 한인의 상당한 소유의 예배당과 목사가 있기를 바라고 모든 일반 교인은 정성껏 전능하신 주의 빌 단바 간절히 기도 하나님께 상달하여 첫째는 한인의 운하든 예배당을 사게 되었고,

신, 이현리이었다. 김 강은 본 교회 임원이 아니었지만, 그의 부인은 주일학교 교사임을 알게 된다. 그 부인은 주일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한글학교 교사로도 활동했다. 그런데 본 교회 목사 김중수는 김 강과 함께 만주 주일학교 대회에 참석차 도미한 분이다.

나성 한인감리교회 전도사

나성자유교회가 나성한인감리교회가 된 이듬해인 1931년 1월 4일 오전 12시 50분에 벵들롱 예배당에서 미국 남감리교 나성감리사 테비스 목사가 사회하고 김성권이 기도한 후 계삭회를 열어 나성한인감리교회 임원을 선정했다. 이날 김 강이 지방 전도사로 선임되었다. 김 강이 한국에서 감리교 협성신학교를 졸업하였으므로 본 교회 지방 전도사 선임은 자연스럽게 보인다. 이날 본 교회 목사에 황사용, 평신도 대표에 최능익, 주일학교 교장에 김해반, 유사에 황성택, 임정수, 광림대, 박재형, 윤으로사 그리고 박경신 이 선출되었다.

김 강은 1936년 9월부터 남가주대학원에서 지질학 박사과정을 밟

다. "기다리던 웃놀이대회의 일자는 이제 다달았습니다. 미주에서 처음 개최되는 이 사교회에 참석치 못하시고 후회하시지 마시오"라고 적은 후 이어서 "저간 만반의 준비는 흠족하게 준비되어 웃놀이 이외에도 흥미가 진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입니다"라고 적은 후 "주최자 김 강 고백"이라고 적힌 것을 보면 광고 문장을 김 강이 쓴 것 같다.

그달 25일 자 신한민보에 나성한인감리교회가 특별예배에 관한 광고를 아래와 같이 게재했다. "현하 원동의 정세는 과연 우리의 바라고 바라던 기회가 각일각으로 가까워옵니다. 이 반면에 저 원수 애적은 한반도 안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의 재산과 생명을 온갖 악착한 법령과 수단을 써서 착취하는 가운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예수교회까지 저 원수의 마수가 뻗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까지 자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본 교회에서는 이 때에 하나님의 뜻이신 정의, 인도에 근거한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의식을 교육과 일반 재류 동포에게 더욱 철저하게 하기 위하여 매달 첫 주일에는 특별히 독립운동에 대한 기도와 강설로 예배

1943년 5월 29일 토요일 오후 8시 30분에 나성 국민회 총회관에서 모인 북미학생연합회 서부지회 대회에서 김 강이 "제2차 세계대전은 우리 학생에게 사명을 재인식케 하였다"는 시세에 응하는 간곡한 고도 열정의 웅변으로써 학생들의 과거의 침묵을 깨우치게 하였으며 특별히 학생이란 말은 청년을 의미한 것을 잊지 말며, 진리를 탐구하기를 게을리 하지 말고, 동시에 일을 위하여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던 그는 변준호 등과 함께 1945년 1월 미국 전략첩보국(OSS)에 입대하여 그해 9월에 제대했다.

김 강은 1946년 미국 공산당에 가입하여 활동한 혐의로 재판받고 1955년 미국에서 추방되어 북한으로 입국한 후 알려진 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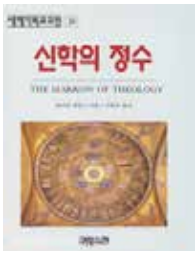
damien.sohn@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부르클렌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45 금요일기도: 오후 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Tel: (718)265-2584, www.fkcb.org 14 Gravesend Neck Rd., Bklyn, NY 11223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화-토) Tel: (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금요일기도: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주 일 2부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김경),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철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pcpc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일기도: 오후 8:30 (매주 1주, 3주) 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양육반: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 요 찬 양 모 임: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청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일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45 전교인특별새벽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 Tel: (718) 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 St, Bayside, NY 11361	사랑의동산교회 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 오후 1:00 주일 EM: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 Tel: (516)433-0862 8 Duffy Ave., Hicksville, NY 1180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 주일 2부 오후 1:50 주일 3부 오후 1:50 청년예배 오후 9: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전 7:30 Tel: (347)513-1351, cheongs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www.kapcc.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기도: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 오후 9:00 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함곤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김대우 신학대학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Tel: (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40 새벽 기도 회: 오전 5:30 수 요 저녁 예 배: 오후 8:30 금 요 기도 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 Tel: (516)520-2004, www.nygetsemane.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뉴욕몽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진국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일예배: 오후 09:00 금요일 기도 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 (718)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h2>하와이 및 북미 지역</h2>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기도회: 화, 목, 금, 토요일 오전 7:30 금요일찬양기도회: 화, 목, 금, 토요일 오전 7:30 Tel: (604)584-5780, www.pc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찬양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8-010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31)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윌리엄 에임스(William Ames)의 “신학의 정수(A Marrow of Theology)” (4)



3) 전인적인 의지의 행동인 신앙 신앙은 심령을 생명과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이신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모든 악에서 구원 받고 모든 선을 따르게 된다(시37:5, 렘17:7). ‘믿는다’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증거를 인정하는 지성의 행위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의지가 감화(感化)되며, 의지를 통해 이와 같이 증명된 선을 받아들이게 되므로, 신앙은 의지의 행위로 불리울 수 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신앙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요1:12,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

신앙은 선택행위이며 전인적인 행동이다. 이는 결코 지성만의 행위가 될 수 없다(요

매개적 대상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신앙하기 때문이다(고후3:4, 벰전1:21). 신앙의 진정한 대상은 우리가 선을 추구할 때 우리가 의뢰해야 할 하나님이다(고전2:2,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의 구원에 주목하는 신적 신앙을 가지려면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앙해야 한다(고전2:5,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권위는 이러한 방식으로 신앙되어야 할 모든 진리에 대한 직접적이고 고유한 근거가 된다. 신앙은 최종적으로는 하나

로서 하나님에게 안식하는 것이다(신30:2,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다). 신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살게 하는 최초의 행위이므로, 신앙은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연합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지식을 승인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더욱이 자신의 비합과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안에서는 구원의 수단이 전적으로 결핍되어 있다는 인식에서 신앙을 수용하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총족하고 신실한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 지성의 승인을 통해서도 이렇게 복종할 수 없

각한다. 퍼킨스에 따르면, 이 복된 삶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을 통해 얻어진다. 이 점에 있어서 퍼킨스의 신학은 칼빈의 신학과 라무스의 방법론을 조합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에임스는 퍼킨스가 말하는 복된 삶이 방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퍼킨스의 견해와 거리를 두려고 했다. 복된 삶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행복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에임스에게 있어 신학의 목적은 결코 복을 창출하는 데 있지 않았다. 그는 신학의 목적이 인간의 궁극적인 열망과 욕구에 주로 관련되어 있다고 느꼈다. 인간이 자신의 복만을 추구할 때, 인간은 삶의 참된 목적인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다. 그에게 있어 신학은 기독교적인 삶을 위한 학문이었다. 신학은 아무 것도 없는 진공상태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신학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욕구를 통해 주어지고 성립된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신학이 기독교 실천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강조한다.

안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LA비전교회 협력)



용서와 화해

질문) 주 6일 열심히 일해서 번돈 갖다 바치고 당시 한집에 살며 애들 돌봐주시던 어머니 강권에 주일날 교회 가는 것밖에 모르는 재주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10여년 함께 하던 아내는 집을 나가 곧 재혼했고 데리고 나갔던 아이들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그이후로 병원에서 별 이상이 없다 하는데 온갖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용서했을 경우 지병에서 나왔다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과연 근거 있는 내용인지요?

상대방에 대한 용서는 그 시기도 기다려야

답) 용서란 자신이 겪은 피해를 인정하면서 갚으려 하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기억을 제거해버림으로써 멧힌 마음, 눌린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것으로 더 이상 분한 마음 때문에 고통 받지 않게 되며 복수하고 싶은 욕망이나 증오심, 원한 같은 마음의 부정적 기운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만약 용서할 수 없다고 마음을 굳힌다면 기쁨과 평안을 잃게 되고 외로움과 우울함에 처하게 되고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가까운 가족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용서의 대상을 크게 셋으로 나눌 때, 타인에 대한 용서, 스스로에 대한 용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용서가 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용서는 위에서 나눈 내용이 되었고, 스스로에 대한 용서에 대해 보겠습니다. 본인자신을 용서 못하는 마음은 자아 중심적이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남을 용서해야 할 경우,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자신의 죄에 대해 고백한 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두 번째, 죄의 값을 치러야 할 때도 불구하고 구원해주신 예수님을 인정하며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용서란 하나님께 대해 섬성한 마음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에 바람직한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등을 돌리는 것보다는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나은 것처럼 하나님께 화난 감정을 그의 사랑과 이해 속에서 풀어가고 할 때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용서는 사고와 감정만이 아닌 행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곧 편지를 쓴다거나 문자, 이메일 등의 행위의 과정을 거친 후 그 다음 잊고자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빛문서를 찢어버리는 행위와 함께 탕감해주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마 18:23-35).

그렇다면 화해란 무엇일까요? 용서가 일방적이라면 화해는 양방향적인 것으로 자녀가 있을 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혼한 부부간에 역한 감정이 있을지라도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이므로 두 사람이 원수처럼 지낸다면 이미 고통 받는 자녀들에게 불안감을 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 배우자가 주말에 자녀들을 데리러 왔을 때, 화해한 경우는 문밖에 서서 좋은 시간 보내라 할 것이고, 아닌 경우는 방으로 들어가서 다들 떠날 때까지 나오지 않는 것인데 집을 떠나는 자녀들의 마음은 천지 차이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한 가지는 용서의 시기입니다. 기독교인 이혼자들에게 용서라는 단어는, 성경말씀 중에 ‘너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구절이 있기에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사람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인 용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서로의 마음과 용서의 환경을 만들어주실 때를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15면으로 계속)

신앙은 지식보다 확실...신학이 기독교 실천 촉진한다고 강조 “지성계발은 의지부패 극복이 우선이므로 회심엔 불충분” 주장

6:35, 내게 오는 자는...나를 믿는 자는). 신앙이 항상 복음에 대한 지식을 전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지의 행동이 수반된다. 지성과 관련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항상 신적 증언에 의존한다. 하지만 신적 증언은 하나님께 대한 의지의 진정한 전환 없이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요3:33).

신앙은 증거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다. 신앙은 그 본성상 어떤 인간적 지식보다 확실하다. 왜냐하면 신앙은 무오류성(無誤謬性)이라는 기초를 가지고 그가 믿는 대상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우리를 올바르게 살도록 하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다(딤후4:10).

4) 신앙의 대상과 내용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는 신앙의 궁극적 대상이 아니라

님의 권위 즉 신적 계시에 의존해야 한다. 벰후1:20-21,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서 풀 것이 아니로되. 또 신앙이 신앙하는 행위를 지시할 때 신앙의 최종적인 근거는 성령의 작용과 내적 감화에 두어져야 한다(고전12:3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하는 이러한 신앙은 진정한 본래적인 신뢰이다. 이는 확신과 기대를 위한 선하고 총족한 수단의 선택과 획득을 지칭한다. 이는 신앙의 진정한 본질이 제시되는 모든 성경구절에서 ‘의뢰하다’ ‘의지하다’ ‘신앙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신앙함으로써 하나님을 볼드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며, 우리의 모든 총족한 삶과 구원의

으며, 이는 오직 의지의 동의로써만 가능하다. 신뢰는 장차 오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확고한 희망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신앙의 열매라고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점에서 신앙 자체이다.

어떤 자들은 신앙을 부분적으로는 지성 안에 있고 부분적으로는 의지 안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타당하지 않다. 신앙은 단일한 덕목이요 항상 단일한 성질로 구성된 행위들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4) 퍼킨스와 차이점
이런 점에 있어서 그는 그의 멘토인 퍼킨스를 통해 방향을 정립하고, “신학은 잘살아가는 것에 대한 교리다”라고 말한 페트루스 라무스의 영향을 받았다. 퍼킨스는 신학을 “영원히 복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학문”이라고 생

5) 신앙에 있어 의지의 우선성
그가 강조하는 것은 그와 프라네케 대학의 동료 교수인 마코비우스(Johannes Maccovius, 1588-1644)와의 논쟁의 핵심 논점 가운데 하나였다. 마코비우스는 에임스와 비슷한 입장을 가졌지만 거듭난 자의 마음속의 지성의 우선성을 강조했다. 곧 의지는 지성을 통해 새롭게 된다는 것이다. 지성은 과정의 출발점(terminus a quo)이고 의지는 과정의 도달점(terminus ad quem)이다.

그러나 에임스는 의지의 우선성을 강조했다. “신앙은 ‘전인격적인 행위’를 포함한다. 이것은 절대로 단순한 지성의 행위가 아니고 복음을 믿는데 있어서 의지의 행위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식을 구원하는 지식으로 만든다”고 말한다.

(15면으로 계속)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남성영락교회 담임목사: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토)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아) 주일 학교: 오전 11:00 영아학교(월-금): 오전 5:30 토요새벽인양회: 오전 6:30 토요한국교회: 오전 9:00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원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영아학교: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예배: 오후 1:20 영어권 (장소:KDC, 링컨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아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오후 7:30	다사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머무는교회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0:30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류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주일 3부: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 오후 7:30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주일예배: 오전 6:00(토)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아예배: 오전 9:15, 11:30 영아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세움연합교회(현동목사) (영아)2부: 오전 9:45(분당)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1. 영아예배 2. 영아예배 3. 영아예배 4. 영아예배 새벽: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 3. 영아사역 4. 영아사역 http://www.elpisfamily.org /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찬양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은혜사제기도회: 3955 24시 온로	주님새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회: 오후 7:20(금)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수요일예배: 오전 6:00(토)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분당) E M 예 배 오전 9:45(101동)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분당)	핼(PIM)선교회, 교회 담임목사: 이훈우 주일영아예배: 오전 11:00 한어예배: 오전 11:00 교목부: 오전 11:00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희숙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주일학교: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전 7:0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목회서신

아름다운 착지인생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1840년 영국 런던의 한 옷가게 안에서 한 점원이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한 점원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점원을 통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 점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여 매일매일 틈만 나면 성경을 읽었습니다. 요즘말로 하면 QT를 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일생을 바꾸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고전15:2).

말씀만 굳게 붙잡으면 반드시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청년들과 함께 주말마다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적인 YMCA의 시작이었습니다. YMCA를 시작한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존와나 메이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YMCA는 조지 윌리엄이라는 런던의 옷가게에서 일하던 점원이었습니다. 존와나 메이커는 YMCA가 커지게 되자 이 YMCA 건물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처럼 갈수록 잘되는 인생이 되고 시작은 미약하나 갈수록 창대하고 존귀한 인생이

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십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갈수록 창대하고 아름다운 착지인생이 있고, 시작은 화려하나 갈수록 쇠약하여 마지막은 부끄럽게 끝내버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사가 43:18-19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2020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새해에는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아시고, 내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며,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빈 배 타고 오는 디베

라 바닷가에서 숯불위에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먹이시던 예수님은 언제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우리 곁에서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1-2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고 했습니다. 이사가 41:10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했습니다. 일이 잘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인생이 베팅 끝에 실패하고 생각되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하던 것이 떠나버린 후에 섭섭함과 허전함이 몰려들 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시편 18:1-3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했습니다. 모든 것보다 위에 계신 분,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나그네 인생길 가는 동안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종이 상전을 바라볼같이, 여종이 주모의 얼굴을 바라볼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볼 때 승리의 축복을 여러분도 받게 될 것입니다. 미지의 땅 아프리카가 열렸을 때 영국의 로드라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많은 금은보화를 가져오고 노예를 끌고 와서 왕실에 바쳤습니다. 그때 선교사 리빙스턴은 밀렵 속으로 들어가 질병에 시달리는 흑인들을 치료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리빙스턴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연일연야 신문과 방송은 로드의 얘기로 가득 찼고 그를 영웅으로 떠받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16년의 세월이 지나자 로드란 이름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리빙스턴은 존경받는 선교사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리빙스턴이 귀국하여 글래스고(Glasgow) 대학에서 강연할 때 학생들이 "선교사님, 어떻게 16

년동안 질병과 맹수와 싸우며 밀렵의 어려운 환경을 지낼 수 있었습니까?"하고 질문할 때, "저는 요한복음 14:18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는 말씀과 마태복음 28:20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을 소망 삼고 지냈습니다. 주님의 품안에 안기면 정글이나 바다나 산이나 들이나 그 어디에서든지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나의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는 오늘도 기쁘게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흑인들에게 선교하다가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숨을 거둔 것을 스탠리 기자가 목도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영광스런 인생의 착지였습니다. 리빙스턴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위해 순종의 길을 갔던 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리빙스턴처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승리가 되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착지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ongpak@hotmail.com



1.1.1 부흥기도운동강사 국제컨퍼런스

미국재부흥운동본부 주최, 범해외한디아스포라 대상을 위한 1.1.1 부흥기도운동 강사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범해외한디아스포라 1.1.1 부흥기도운동 강사 국제 컨퍼런스가 지난 11월 23일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미동부시간) 열렸다.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도미니카, 브라질, 아르헨티나, 일본, 한국 등 세계 각국에서 1.1.1 부흥기도 운동의 강사들이 영향력 있는 50여명의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여승훈 목사(칼립니스트) 사회로 격려하는 1.1.1 부흥기도운동 고문인 한국복음주의연합운동의 선구자적 역할을 했던 박영철 목사, 대한민국조찬기도회 회장 무상달 장로, 일본 교계 원로인 신현석 목사, 자문인 워싱턴중앙장로교회 담임 류응렬 목사, 뉴욕선서교회 담임 김재열 목사가 맡았다. 도미니카공화국 국가기도군대 창설자인 최광규 선교사는 국가적인 기도운동을 통해 도

학원 교수)는 차세대 인재 양육에 있어서 기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전했다. 이외에도 성철 목사(미국), 임진형 목사(일본), 김환기 사관(호주) 등 국제 강사들이 패널로 근대사에 일어났던 기도운동과 그 결과를 발표해 지성적 복음주의의 기도운동의 귀한 발표들이 뜨겁게 진행됐다. 1.1.1 부흥기도운동이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된 이래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매일 오후 1시에 1분간 드리는 기도시간을 간절히 기다리는 기도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각국의 1.1.1 부흥기도 강사들로부터 전해졌다. 마지막으로 미국 재부흥운동과 1.1.1 부흥기도운동 대표인 김호성 목사는 해외 한인디아스포라들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기도제목으로 1분간 집중적으로 여호와와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하면 현재의 난세를 극복하고 영적 대부흥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본 기도회는 각 나라별 영향력 있는 교계지도자들이 4시간여 걸쳐서 각 주제가 끝날 때마다 합심해 기도했으며 기도에 대한 열정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표 의식을 더욱 뚜렷하게 갖는 계기가 됐다. ▲문의: (718)718-683-6332(미국)/02)779-1882(한국), 111RevivalPrayer@gmail.com (기사제공: 111부흥기도운동/미국재부흥운동/국제도시선교회(ICM))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에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특별영상을 제작했다

유튜브로 성탄축하 찬양하세요

남가주교협 2020 성탄특별축하찬양 영상 제작 전현미 회장은 "올 한해는 코비드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확진자들의 증가와 정부의 규제로 성탄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희망이 점점 사라지게 된 것이 안타깝다"며 "이러한 상황에 많은 교회에서는 찬양 준비도 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을 볼 때 저희 협회에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2020 성탄 특별 축하 찬양' 영상 제작을 Virtual

Choir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성탄의 계절인 12월에 일반 주일이나 성탄주일에 저희 협회가 특별 찬양 순서로 함께 사역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Virtual Choir에는 특별히 2019년도에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주최로 열린 학생 찬양경연대회 때 기악부에서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학생들과 교사들이 참여해 좀 더 풍성한 찬양을 준비했다. 2020 성탄 특별축하찬양 영상은 12월(토)에 유튜브에 올린다. YouTube에서 '2020 성탄 특별축하찬양'을 입력하면 영상을 다른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회장 전현미 회장 (310-381-9835, hchon@g.ucla.edu)에게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사립학교 교사자격증 과정을 개설한다

2021년 1월 4일부터 2주간 온오프로

그레이스미션대 사립교 교사자격증 과정 개설 최규남 총장은 ACSI 사립학교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과목인 Christian Philosophy of Education(교육에서의 기독교 철학) 과목을 겨울 특강으로 오픈하고 사립학교 교사 사역에 관심을 가진 자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ACSI 사립학교 교사자격은 현재 미국 내 3,300개와 전 세계 100여국 24,000개의 사립학교가 인정하는 자격이다. 이를 위한 기자회견이 3일 오전 11시 화상으로 진행됐다. 본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 GMU 행정처장 제임스 교수는 "사립학교 교사자격증은 신학교에서 배운 과목들을 미국 내 기독교 및 해외 선교지 기독교 학교에서 교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Certificate 받는 절차이며, 다음세대를 향한 교육신조에 관심을 가진 모든 평신도, 교육자, 선교사, 신학생, 등에게 필요한 도전이다. GMU는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와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On



한미특수교육센터 창립20주년 기념축하행사가 온라인으로 열렸다

Community Impact Award 3명 시상

한미특수교육센터 창립20주년 기념축하행사 창립 20주년을 맞는 한미특수교육센터(대표 로라 장)가 12월 3일 저녁 7시에 온라인으로 축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셸바스텔, 영길 연방하원의원 당선자 등 커뮤니티 리더들과 전 메이저리그 박찬호 선수, 92년 미스코리아 진 유하영 씨, 배우 신애라, 차인표, 사강 씨 등 연예인들의 축하 메시지 전달과 함께 센터의 20주년 기념 동영상이 상영됐다. 또한 20년간 발달장애인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준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상(Community Impact Award)을 시상했으며, 장애학생들과 비장애학생들이 함께 연주하는 하모니아앙상블이 특별한 크리스마스 캐롤을 연주해 감사와 축하의 시간을 장식했다. 이번 Community Impact Award는 3가지로 △Embrace Award(헌신한 개인봉사자에게 수여)는 지난 2010년부터 센터의 크고 작은 행사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한 New York Life의 석승진 씨가 수상자로 결정됐다. △Educate Award(발달장애 전문가에게 수여)는 캘리포니아 내 유일한 한인 발달장애 소아과의사로 한인 발달장애 가정들을 위해 애써준 박현선 박사가 선정됐다. △Empower Award(발달장애인가정 지원 후원단체에 수여)는 자폐증의 조기발견과 치료에 너무나도 중요한 영유아 발

달선별검사를 지난 2015년부터 지원해준 시라기쿠 재단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미특수교육센터는 2000년에 특수교육 전문가들이 설립한 비영리단체로서 미국에서 유일한 한인 장애 정보 및 교육센터로, 한인 발달장애 학생들(자폐증, 지적장애)과 그 가족을 위해 지난 20년간 각종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한국어로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팬데믹이 시작된 3월 이후로 한인 장애가정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양한 식료품과 마스크, 손세정제 등 총 8만개를 지원했다. 한편 로사 장 소장은 올해 세계한인의 날을 맞아 해외유공자에게 수여되는 한국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다. ▲문의: (562) 926-2040 (박준호 기자)

Campus, Distance, 및 Hybrid 방식 등을 통해서 모든 과정은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독교철학 겨울특강은 2021년 1월 4일부터 2주간에 걸쳐 인텐시브 방식으로 월, 화, 목 저녁 5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 30부터 4시까지 Zoom 화상방식, 통신판식, 토요일 대면 미팅방식 등 하이브리드방식으로 수강 여건에 따라 실시간 강의참석 혹은 강의 녹화를 통신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제공한다. 또한 GMU는 ACSI에서 제공하는 Certificate 자격증 신청 절차를 대행하고 있다. 이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에서 제공되는 신청서를 참조하면 된다. 강의 관련 신청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신청서는 학교 홈페이지의 겨울특강 신청서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2월 7일부터 21일까지. 자세한 문의는 학교 홈페이지 www.gmu.edu와 전화(714-525-0088), 이메일(admissions@gmu.edu)로 문의하면 된다. 학위과정은 △대학부: 신학 학사(BA), 상담학학사(BACC) △대학원: 기독교상담학석사(MACC), 기독교교육학석사(MACE), 선교학(교차문화학) 석사(MAICS), 목회학석사(M. Div) △박사과정: 선교학박사(DMiss)학위, 교차문화학 철학 박사(PhD) 과정이 있다. (박준호 기자)

교계 게시판

'Dear GOD' 40일 기도 묵상집 출간

LA비전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대준 목사가 3권으로 구성된 영성훈련을 위한 40일 기도 묵상집 'Dear GOD'를 출간했다.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본서는 바르고 깊은 영성의 기도와 사랑, 은혜의 말씀을 담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계승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 기도가 일상화가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출간했다. 판매처는 UKARIS 출판사 홈페이지(www.ukaris.com/deargod), 아마존 ▲문의: (213)291-5072 kdaejun@gmail.com

전도사 청빙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담임 김종규 목사)가 찬양사역 또는 청년 목회에 동역할 파트타임 전도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건전한 개혁주의 신학교 재학생(졸업자도 가능) △이민교회 청년부 사역에 비전이 있는 자이며 사역내용은 주일예배 찬양 인도와 청년부 사역, 제출서류는 △이력서(가족관계 포함) △신앙고백서(가족사진 첨부)이며 12월 말까지 조은하 목사(pious94@gmail.com)에게 보내면 된다.

▲문의: (714)891-2029

교육부 사역자 청빙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담임 조응철 목사)가 교육부 사역자를 청빙한다. 자격은 소명이 확실한 신학대학원(M. div) 또는 기독교교육 관련 재학생(졸업생)이며 제출서류는 △이력서(사진 첨부) △자기소개서 및 신앙고백서 △목사 추천서(2인)이다. 접수는 12월 31일까지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또는 이메일 drjho@hotmail.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702)296-9193

한인가정상담소 연말후원 캠페인 런칭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케서린염)는 '희망의 선물을 나누세요 (Give the Gift of Hope)' 주제로 '기빙투스데이(Giving Tuesday)'를 맞아 연말후원 캠페인을 런칭한다. 2012년 이래 추수감사절 이후 본격적인 할러데이 시즌이 시작되면서 주변의 불우한 이웃을 돕고 있다. 후원 수표(Pay to: KFAM)를 한인가정상담소(3727 W. 6th St. #320, LA, CA 900)로 보내면 된다. 한편 한인가정상담소(KFAM)는 신입 부소장에 제니퍼 오(Jennifer Oh), 전 한인가정상담소 가정폭력부 매니저를 12월 1일자로 임명했다. 제니퍼 오 부소장은 미시건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에서 사회학(Sociology)학사, 남가주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캘리포니아주 임상사회복지사(Licensed Social Worker)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문의: (213)235-4869 제시카 라 프로그래머 매니저, (213)235-4848 이미리 홍보담당

오른손구제센터 후원안내

오른손구제센터(대표 안승백 목사)가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후원은 물품, 식품, 생활용품 등과 후원금(payable to RHCC)이다. 주소는 The Right Hand Charity Center/35 - 24 Union St. #B/Flushing, NY 11354 ▲문의: (646)233-6722



동부개혁장신 장학기금을 위한 찬양축제를 마치고 참여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팬데믹속 마스크 쓰고... "남은 자로 살라"

동부개혁장신 제34회 장학기금을 위한 찬양축제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박사) 제34회 장학기금을 위한 찬양축제가 12월 2일 저녁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열렸다.

동 신학교는 1987년 설립부터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 모금 음악회를 열어왔다.

예년에는 3개 교회를 순회했지만 올해는 팬데믹으로 퀸즈장로교회에서만 개최됐다.

학장 김성국 박사는 "찬양축제를 하지 못할 이유가 차고도 넘쳤다. 교회들이 문이 닫혀 연습조차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부른 찬송 중에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라는 가사가 있다"며 마스크를 쓰고도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를 소개했다.

김성국 학장은 팬데믹 가운데 불가능해 보였던 찬양제를 열게 된 과정을 소개하며 "지휘자인 윤원상 교수가 찬양제를 할 수 있다고 했으며 학장 허윤준 목사도 이에 동조했다. 그러자 학생들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모으고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다. 오늘처럼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당부했다.

학장 허윤준 박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으로 탁월한 리더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학교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끝까지 남은 자로 사명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찬양제는 재학생과 일부 동문들이 합류한 동부개혁

장로회신학교 찬양대가 윤원상 교수의 지휘와 송소영 집사의 반주로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꽃들도", "남은 자", "그날까지 주와 동행", "아름다운 나라", "할레, 할레, 할렐루야" 등 6곡을 찬양했다.

허영미 권사의 장구와 감지영 전도사의 팽과리 등 특별 악기가 합류해 찬양 분위기를 더했다.

예배는 학감 허윤준 목사 인도로 기도 김성은 학우, 성경봉독 이성남 학우, 신학교합창단 찬양, 설교 김성국 목사, 신학교합창단 찬양, 헌금기도 학감, 축도 학장 순서로 진행됐다.

김성국 박사는 "남은 자"(사 10:20-23)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본문에 나오는 '남은 자'와 '나머지 사람'들이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가?"라며 "남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이며, 하나님이 맡기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는 자이며, 진리 앞에 진지하고 진실한 자세를 가지는 자"라고 강조했다.

김성국 학장은 "남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로 삶이 바뀌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죄인으로 살지 않고 의인으로 살고, 죽음으로 살지 않고 사명으로 살며, 자기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며 신학생들에게 "남은 자로 살라"고 강조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매달 첫 주 금요일 오후 5시

뉴욕교회 청소년센터 "미디어 사역" 시작

뉴욕교회 산하 청소년센터(AYC)가 12월 2일 오전 11시 뉴욕주정교회(담임 황영송 목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디어 사역(Media Ministry)" 시작을 알렸다. AYC는 지난 9월 열린 청소년 할렐루야대회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며 미디어 사역의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다.

2020 청소년 할렐루야대회는 현장참석이 40명(진행팀 포함)밖에 안됐지만 온라인 클릭 수는 첫날 850이 넘는 성과를 보였다.

AYC 사무총장 김준현 목사는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대표 황영송 목사는 "코비드를 사역확장 기회로 삼겠다"며 "2세대를 위한 영상(미디어)가 없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2세대를 위한 영상(미디어)를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코비드가 터졌다. 미디어들의 협조를 받아 이를 실행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AYC 미디어 사역은 우선 2가지로 첫째, 1달에 1회 예배 형식의 영상이 제공되며 첫 영상이 12월 4일 시작됐다. 매달 첫 번째 금요일 오후 5시 15-20분의 예배형식 동영상이다. 두 번째는 주제를 정해 뉴욕에서 사역하는 청소년 사역자들과 청소년들이 나와 이야기를 나누며 도전하는 3-5

분 동영상에 격주로 상영된다. 동영상은 AYC의 유튜브를 통해 제공되는데, 웹사이트 및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매주 홍보되고 있다. 각 채널에서 Asian Youth Center of New York를 검색하면 된다.

황영송 목사는 예배형식 동영상은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통로역할을 기대하며 교회는 다니지만 요즘 영상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사장 송윤섭 장로는 "코비드로 AYC도 힘들지만 미디어 선교 사역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제작 영상에 후원단체나 후원자 이름을 삽입하는 재정적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CTS뉴욕 손민석 국장이 참석해 한국에서 추진 중인 다음세대를 위한 영상제작과 발맞춰 뉴욕에서 AYC 미디어 사역을 후원한다고 소개했다.

한편 5일 저녁 상영된 첫 영상은 총17분으로, 사무엘 전도사가 간단히 미디어사역 설명을 하고 기도한 후 기타반주에 맞춘 찬양(2명)에 이어 Joey Yim 목사가 7분 정도로 메시지를 전했다.

(유원정 기자)



AYC 미디어사역을 위한 기자회견이 지난 2일 뉴욕주정교회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김준현 사무총장, 백달영 교령부회장, 송윤섭 이사장, 황영송 대표, 김창인 디렉터, 손민석 CTS뉴욕국장

PCUSA동부한미노회 첫 여성목회자 노회장 선출

신임 노회장 장경혜 목사, 이시영 목사 노회가입

미국 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가 제95차 정기노회를 열고 한인 여성목회자 최초의 노회장을 선출했다. 뉴욕소망장로교회(담임 장경혜 목사) 현장



장경혜 목사



이시영 목사

과 화상회의로 열린 이날 노회장에 장경혜 목사와 부노회장에 오문구 장로(산돌교회)를 공천해 통과시켰다.

신임 노회장 장경혜 목사는 "부족한 사람이라 망설였지만 노회가 필요로 하면 섬기는 것이 좋다는 전 노회장님으로부터 조언을 듣고 취임하게 됐다"며 "특히 미국장로교 총회로부터 왜 한인교회는 여성리더십을 세우지 않는가 하는 오해를 받는 상황에서 이런 인식을 깨고 싶었다고 말하고 "정성을 다해 1년 동안 섬기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동부한미노회는 이날

뉴욕평안교회 3대 담임목사로 이시영 목사 청빙을 허락하고 노회가입을 허락했다.

이시영 목사는 연세대학교(BA)와 장로회신학교(M.Div)를 졸업하고 2010년 예정통합 동남노회 목사안수를 받았으며 도미 후 시카고 한미장로교회 부목사로 사역했다.

뉴욕평안교회는 교회를 개척하고 34년을 묵회한 우수환 목사가 은퇴하고, 2017년 조재형 목사가 2대 담임목사로 취임하고 목회하다 사퇴했다.

(유원정 기자)



대한민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임원들. 왼쪽부터 장세할 사무총장, 박용기 수석 부회장, 손성대 회장, 강현석 직전회장, 정훈 간사

회장 손성대 장로 임명 받아

한국 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조직 발표

사단법인 대한민국가조찬기도회(회장 두상달 장로) 뉴욕지회가 지난 12월 6일 임원 회를 열고 조직을 발표했다. 회장 손성대 장로는 지난 11월 16일 한국 국가조찬기도회로부터 뉴욕지회장으로 임명 받았다.

조직은 다음과 같다.

△평의회장 강현석 장로 △회장 손성대 장로 △수석부회장 박용기 장로 △부회장 김대수 목사, 마바울 목사, 황현영 장로, 이계훈 장로, 박해웅 장로 △사무총장 장세할 장로(DDS) △간사 정훈.

회장 손성대 장로는 뉴욕교회 협 이사장 및 부회장, 대뉴욕 지구한인장로연합회 회장, 뉴욕장로성가단 단장 등을 역임했다.

국가조찬기도회는 1952년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주도로 워싱턴D.C에서 시작됐으며 한국은 1966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고 김준권 목사 등 교계지도자들이 나서 국가조찬기도회를 설립하고 매년 기도회가 열리면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모임이다.

뉴욕지회는 2004년 당시 회장 정근모 장로가 뉴욕을 방문

해 강현석 장로를 뉴욕지회 초대회장으로 임명한다 있다.

2017년에 회장 채이송 장로가 뉴욕을 방문하고 다시 뉴욕지회가 강현석 장로를 중심으로 조직화 됐다. 이후 2019년과 2020년 연이어 뉴욕지회는 두상달 회장이 참가한 가운데 조찬기도회를 열었다.

(기사제공: 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멕시코 대학 한국어반 지속되도록

GKF 지난3년 경과보고 및 장래계획 발표

은혜 한국어재단(Grace Korean Foundation, GKF, 회장 흥연숙)은 최근 열린 온라인 이사회를 통해 지난 3년간 사역에 대한 경과보고 및 장래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창기 UABC 한국어 Program: 성공적인 3년 계획(2017-2020)

2017년 멕시코에 "3개년 계획"(3-year plan)으로 한국어반을 개설했다. 처음 2반으로 시작했으나 현재 6개반(학생

약 100명) 강사 3명으로 발전했다. 멕시코의 한국어프로그램은 뜻 깊은 동기(에네켄 후손에게 한국어를 가르친다)와 여러 유지들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2020년 가을학기부터는 "제2단계의 3개년"을 계획하는 "강사양성" 프로그램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 제 2단계 3년 계획(2021-2024): 한국어 강사양성 프로그램의 필요성

원래 계획은 3년간 대학내 한국어반 개설 정착으로 재단

임무가 끝나는 것이었으나 강사부족으로 강좌오픈이 위기에 빠져있다. 강사들이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곳으로 가버려 이 대학교 엔세다니 분교 한국어반은 2년 만에 폐강됐다. UABC 대학 본교가 있는 멕시코 시에도 한국어반 요청이 있지만 강사가 없어 개강을 못하고 있다. UABC 대학의 3개 캠퍼스에 학생수가 52,000명에 달하고, 이중 현재 유일하게 한국어 강의가 있는 티후아나 캠퍼스뿐이며 수강생이 100명이 넘는다는.

(13면으로 계속)



뉴욕나눔의집 쉼터건립 후원의 밤을 위한 기자회견 후 기념촬영 했다. 왼쪽부터 박성원 목사, 방지각 목사

12월 19일 오후 7시30분 유튜브 생중계

뉴욕나눔의집 쉼터건립 후원의 밤, 강사 윤희기 목사

한인노숙인 사역을 하고 있는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 www.nanoomhouse.com)이 2020년 12월 19일(토) 쉼터 건립 후원의 밤을 갖는다. 매년 연말에 후원의 밤을 개최해왔으나 올해는 팬데믹으로 유튜브 생중계로 개최하며 특이 단순 후원이 아닌 쉼터건립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12월 8일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뉴욕나눔의집 상황과 후원의 밤 개최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 박성원 목사는 "내년 5월이면 10년이 되는데 초기에는 알코올 마약 등 중독자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정신건강과 재정문제로 노숙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내년 초 리스가 끝나 이전해야 하는데 차라리 건물을 구입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소망이 있다"고 쉼터구입 이유를 설명했다.

뉴욕나눔의집은 현재 렌트 및 유지비로 월 6천 달러 정도가 소요되는데 입주자가 20여명(현재 여 2명, 남 15명) 정도 됨으로 새로운 장소를 찾기도 쉽지 않다.

박성원 목사는 "어려운 시기지만 지금까지도 불가능한 일

들을 해 오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을 추진하려 한다"는 말했다. 박 목사는 "쉼터 구입을 위한 1차 2차 3차 계획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발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최상은 지하 1층과 지상 3층의 3백만 달러짜리 건물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나눔의집을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고 오찬을 대접하고 후원한 상임고문 방지각 목사는 "부끄럽다"며 "뉴욕인근에 500여 한인교회가 있는데 한인 노숙인 쉼터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겠나.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이었고 그 뒤엔 항상 기적을 베풀었다. 재앙을 대비해서 긍휼을 가지라"고 말했다.

이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후원의 밤은 19일(토) 오후 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주 강사는 가수 윤희기 목사가 맡고 몇 명의 축사가 있다. 유튜브 동영상은 CTS뉴욕 채널을 통해 방영된다.

박성원 목사는 마지막으로 "생명살리기 사역인 나눔의집 사역은 노숙인들이 정상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이번 후원의 밤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연락처: nanoomhouse9191@gmail.com

(유원정 기자)

“청교도 신앙 회복 및 부흥(復興)” (30) Puritan Restoration and Revival

김경일 목사

(남가주 청교도 이주 400주년 기념 책자 저자 / 남가주행복찬교회담임)



2020 미국 청교도 이주 400년 기념 특집

dom)이 아닌 리버티(Liberty)인 것이다.

즉, 리버티(Liberty)는 프리덤(Freedom)보다 좀 더 격식적(Formal)인 표현으로 “내가 원하거나 소망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라는 뜻이다. 패트릭 헨리의 외침(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정한 자유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놀린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눅4:18) 주시고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32)고 한 그 자유(Liberty)를 선포한 것이다.

영국의 식민지 폭정에서 우리가 이대로 살 수가 없으니 우리에게 해방의 자유를 주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죽음을 달라고 외친 것이다. 이 연설 이후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

라고 볼 수 있다. 제퍼슨과 그의 추종자들은 그리스와 로마 사상가들의 작품을 그 시대의 원전으로 해독하고 인용할 수 있을 만큼 고전에 밝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새로운 사상에 도해박한 사람들이었다.

1776년 8월 2일에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주 하원 인디펜던스 홀에서 13개 식민지주에서 온 56명의 파견단들은 1774년 7월 4일에 통과된 선언문에 서명을 하였다.

이 서명자 중에는 뉴저지 주에서 온 존 위더스푼과 펜실베이니아 주의 벤자민 러시, 벤자민 프랭클린, 버지니아주의 토머스 제퍼슨, 매사추세츠의 존 아담스, 새뮤얼 애덤스 등이 있다. 그 이후 메릴랜드 주는 가톨릭교도들이 주로 이주한 곳이었으며, 펜실베이니아 주는 퀘이커 교도들이 건설했다.

최초 정착지인 버지니아를 비롯해 뉴욕과 캐롤라이나, 조지아 주 등은 국교회(영국성공회)가 주의 공식 종교였고, 매사추세츠와 코네티컷, 뉴햄프셔 등 뉴잉글랜드 지역은 청교도회중교회(Congregational Church)가 국교 역할을 했다.

이렇게 1776년 13개 식민지의 대표들은 미국독립선언에 서명하고 새로운 국가인 아메리카합중국(미국)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실질적 영국으로부터의 완전 독립은 7년 후이다. 1778년 미국은 프랑스와 동맹을 맺어 프랑스의 군사적 지원을 받았으며 이후 에스파냐와 네덜란드 공화국과도 동맹을 맺었다.

미국의 대륙군은 1777년 사라토가 전투(Battle of Saratoga)와 1781년 요크타운 전투(Battle of Yorktown)에서 영국 제국의 군대에 승리하였다. 미국과 영국 제국은 1783년 파리조약(Treaty of Paris)으로 평화협정을 맺었고 영국은 미국의 독립을 인정하였다.

미국의 국경은 북으로는 오대호와 세인트로렌스 강, 남쪽은 남쪽 경계 및 북위 31도, 서쪽은 미시시피 강으로 정해졌다. 또한 미국인에게는 뉴펀들랜드 섬에 있어서의 어업권 및 미시시피강의 항해권이 인정되었다.

kimjoyh@gmail.com

7) 미국의 정치관(정교분리,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회복과 부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롬13:1).

(1) 미국 독립혁명(The American Revolution, 1776년 7월 4일)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로부터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다...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이다(미국 독립선언문, 1776년 7월 4일).

미국 독립 선언에 서명하는 13개 식민지의 대표들

청교도들의 정치관은 왕권 신수설을 배격하고 하나님 말씀에 바탕하여 통치자의 권력을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 보고자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에 의해 만든 것이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처음으로 명기된 미국의 자유 헌법, 수정 헌법 1조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모든 사람은 평등하므로 자유롭다” 라고 선언했다.

세상의 권세(롬13:1)는 성경의 말씀대로 인정을 받되 온 우주와 하늘과 땅의 권세자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권세자의 말에 충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 선지자적 사명을 가져야 한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Martin Luther)가 비텐베르크 성문 안에 95개조 반박문 이 바로 증거다. 즉, 사람은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통

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 선포가 종교개혁의 신호탄이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란 프로테스탄트(Protestant) 선언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로마교황청에 항거하며 마틴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고 그 성경을 누구나 읽게 되었다. 그래서 중세 봉건사회가 붕괴되면서 사회, 경제, 정치 모든 영역에서 소위 근대 시민사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종교영역 안에서는 여전히 교황청 아니면, 국가가 교회의 교권을 차지하는 상태였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만들어진 교회가 루터교이다. 루터교는 독일, 스칸디나비아 3국의 국가교회가 되었는데,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오직 루터교만 믿어야만 되는 상황이다.

1534년에 영국은 헨리 8세가 영국교회 동의를 얻어 수장령을 발표하고 비성경적인 교회의 수장이 되었다. 이제 교

회가 장로교이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만 믿어야 하는 것이다.

헨리 8세가 교권을 갖고 국가교회가 된 성공회 안에 개혁적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비신앙적 요소와 전통을 제거, 개혁하기를 원했다. 바로 청교도들이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자유에 따라 성경을 마



청교도 정치관은 왕권신수설 배격, 하나님 말씀 바탕으로 통치자 권력 제한 미국의 자유헌법 수정헌법 1조 “모든 사람은 평등하므로 자유롭다” 선언

황의 지배를 받던 카톨릭교회가 아니라 영국의 국왕이 지배하는 교회, 영국의 국교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영국 사람들은 국가교회인 성공회 교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또한 1540년경에 칼빈의 개혁교회가 제네바에서 이루어졌는데 제네바 시에서는 시민들은 개혁교회만 믿어야 되는 것이었다. 1560년경 스코틀랜드의 존 나스가 제네바에 와서 칼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래서 만들어진

음대로 읽고, 해석하고,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비국교도들이 생겨난 것이다.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영국 왕에게 요청을 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의 대표적인 사례로 존 번연이 있는데 그는 침례교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니,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에서 존 번연은 불후의 명작인 ‘천로역정’을 저술하였다.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영국의 플리머스 항을 출발해서 신대륙을 찾아낸 곳이 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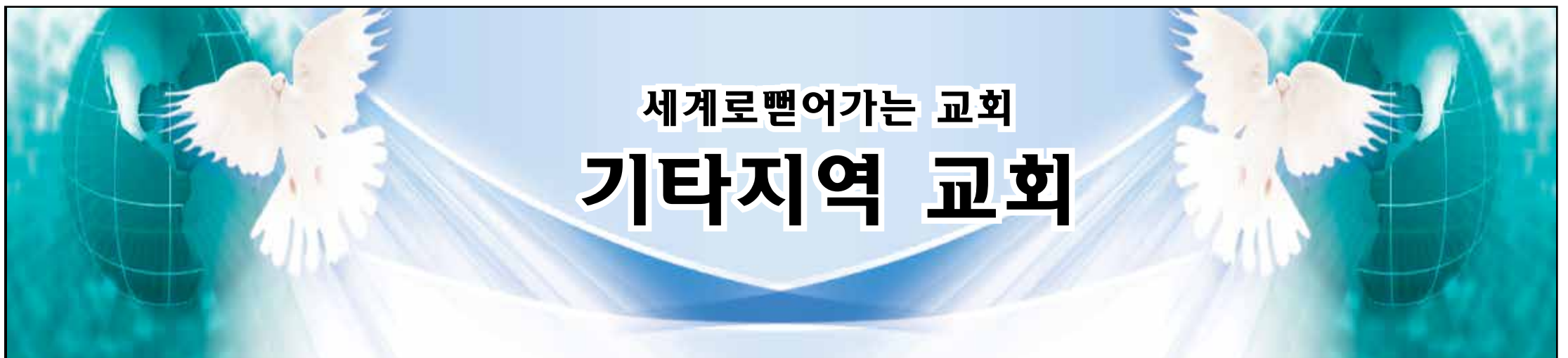
아니면 죽음을 달라(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고 하는 명언을 썼다. 이 명언은 지금부터 225년 전 당시 39세의 변호사이자 버지니아 식민지 의회 의원인 패트릭 헨리가 남긴 말이다.

영국(England)의 억압적인 지배 속에서 착취를 당하고 있던 중 영국에서 부과하는 우편세(Stamp Act) 인상을 통해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되었을 때였다. 영국의 폭정에 대항해 “죽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이 말에서 자유는 프리덤(Free-

에서 벗어나는 미국 독립전쟁(Revolutionary War)의 단초가 되었다.

1775년 제2차 대륙 회의에서 벤자민 프랭클린, 존 애덤스(제2대 대통령), 로저 셔먼, 로버트 리빙스턴, 토머스 제퍼슨(제3대 대통령)의 다섯 사람이 미국 독립선언서의 기초 작업을 수행했다.

1775년 제2차 대륙회의부터 미국 독립전쟁이 시작되었다. 지적 리더십의 집단적 행동으로서의 독립선언서는 미국과 유럽의 수십 년 간에 걸친 정치적·철학적 논쟁의 산물이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델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전양): 오후 1:45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410)461-1235, Fax: (410)344-3182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전 11: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opedale, MA 01748	살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주일 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항찬양: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영어, 유년, 유년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www.kpp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장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금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저녁예배: 오후 8: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Tel: (254)535-1842(H), (254)501-48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 예수교회 담임목사: 김형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EM) 수요찬양: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804)560-7500, www.jjk.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벽 기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www.tacomacrc.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215)927-0630, www.kucc.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첫 행보 '코로나19극복 이웃사랑 김치나눔'

한교총 4기 대표회장단 취임... 한국교회 연합 이끌 것

소강석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장, 이철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장중현 예장백석 총회장이 3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신임 대표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한국교회의 연합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교회와 사회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4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장 대표회장은 취임사에서 "한국교회의 영혼이 매달라 가는 이 시점에 한교총이 성령운동과 기도운동으로 하나 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겠다"면서 "교계를 위한 희생과 봉사, 삼김의 정신으로 주어진 십자가와 말씀의

뜻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회장은 "어려울 때일수록 분열해서는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면서 "마음을 모아 연합하고 사회의 평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회기 한교총 범인 이사장도 맡은 소 대표회장은 "지금처럼 교회의 연합이 요구되는 때가 없었다"면서 "두 분 대표회장님과 함께 한국교회에 '원 리더십'(하나 된 지도력)을 세우도록 섬기겠다"고 말했다.

정기총회 참석자들은 '한교총 제4회 총회 결의문'을 채택해 발표했다. 결의문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한기채 목사와 예장개혁총회장 안성삼 목사가 대표로 낭독했다. 회원 교단장들도 모두 강대상으로 나와

뜻을 모았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코로나19의 재난이 속히 지나가기를 기도하며 모든 생활영역을 단순화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한다"면서 "한국교회는 여·야, 진보와 보수의 자리가 아니라 인권 자유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함께 '화평케 하는 자'의 자리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족의 화해와 통일, 평화와 공존을 위해 노력하고 경제적 약자들을 지원하며 청년 여성 노인 이주민들의 아픔과 함께 사회·구조적 모순으로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모자보건법, 사립학교법 등의 문제에서도 무분별한 변화는 거부하되, 장소별 생명의 존엄과 질서를 지키며 모든 사람이 희망으로 꿈을 꾸는 미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행사 후 4회기 첫 사역으로 '코로나 극복, 이웃사랑 김치나눔' 행사를 가졌다. 당초 김치를 직접 담글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문업체에서 생산한 포장 김치를 수도권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대표회장이 소속된 3개 교단과 세계선교협의회(CWM)의 후원으로 마련된 10kg김치 920상자는 서울시장에인소규모복지시설협회, 서울여 쪽방촌 모리아교회, 영등포 쪽방촌 광야교회,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인천시한부모가족회에 전달됐다.

이날 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참석자를 최소화해 진행했다. 교계 단체, 정부와 언론사 대표, 회원 교단과 협력단체 대표 등은 영상축사를 보내왔다.

"수도권 비대면예배 비현실적 통제조치"

한교총 4기 대표회장단 취임... 한국교회 연합 이끌 것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황 조정으로 수도권 내 교회예배가 사실상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자 교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6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황 조정함에 따라 8일 0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내 교회의 정규예배

가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대면으로 진행하더라도 20명 이내로만 참석이 제한된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중현)은 이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대한 논평'을 내고 "비현실적 통제조치"라며 "종교 시설의 경우 자율방역과 공

간 크기에 비례한 참석 가능 인원을 유효적으로 조절해 줄 것"을 방역 당국에 요청했다.

한교총은 논평에서 "신앙과 예배의 자유뿐만 아니라 일상과 생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재하면, 관제적 방역의 후유증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도식적 방역보다 신앙의 자유와 국민의 일상을 정지하지 않는 표적화된 방역의 모델을 제시하며 협력과 공존의 길을 모

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은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위생과 방역에 협력할 때 성과를 보여온 경험을 바탕으로 과도한 제한을 통한 통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자발적 행동을 유도하는 방역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며 "보건적, 물리적 방역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방역의 중요성을 인식해 포스트 팬데믹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교적 목적 지닌 난민 유입 촉발할 수도"

진평연 토론회,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문제점 지적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등은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서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된 국적, 출신국가, 종교 항목이 초래할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주권행동 신만섭 연구소장은 "외국인 유입 문제는 인권뿐만 아니라 국내·국제 정치적 관점에서 다양한 문제가 내포돼 있기에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서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국민의 인권이나 국가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외국인에 대해 이량은 없애고 만든다"고 주장했다.

신 소장은 "다문화 주창자와 차별금지법 제정론자는 인류애, 인권, 다문화라는 명분을 강조하면서 이민·난민을 더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만약 이민·난민 송출국이 정치·종교적 목적을 갖고 자국민을 전략적으로 보낸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의 외국인 유입

정책에서 감성 논리가 우선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신 소장은 "강대국들도 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한 감성적 야량은 국민 통합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외국인의 내정 간섭 및 정치적 농락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제정지상 각자의 선의는 아랑이지만 약자의 선의는 물종에 불과하다"며 "동등한 힘을 갖지 못한다면 약자는 평화로운 방법을 쓸 수조차 없는 게 국제정지의 냉정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신영철 한국교회언론회 전문위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대상에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가족형태 뿐만 아니라 종교도 들어있다"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정당한 선교 활동이 종교 강요로 몰리면서 종교차별금지에 저촉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은 "2008년 조계종은 종교 간 갈등을 줄이겠다며 종교평화법 제정을 추진한 적이 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매우 유사했다"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종교 강요 금지 조항은 서구사회처럼 학교나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기독교 유치원, 가정의 신앙교육까지 규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기총, 예장총회(개혁)과 업무협약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천만인서명운동' 적극 동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동성애·포괄적차별금지법반대천만인서명운동본부(본부장 김희선 장로)는 12월 2일 세기총 회의실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총회장 최진기 목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기 위한 '천만인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상호 보유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을 수 있도록 상호 업무지원하기로 했으며 온라인 서

명 뿐 아니라 산하 교회에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을 독려하기로 했다.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인사에 나선 예장개혁 총회장 최진기 목사는 "이 나라가 생긴 이후로 처음 겪는 일이 많다. 이러한 때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누군가는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나서야 하는데 김희선 장로님이 동성애·포괄적차별금지법반대 천만인서명운동본부를 통해 이 일에 매진하시는 것에 대해 우선 감

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총회장 최진기 목사는 "다불어 세기총이 이같이 귀한 일에 나서 준 것과 예장개혁총회가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며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본부장 김희선 장로는 인사를 통해 "포괄적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어길 뿐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는 악법"이라고 정의하며 "일부에서는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운동을 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법조인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대한민국 국민 천만 명이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서명을 국회에서나 법제사법위원회,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면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

다"고 말하고 "다시는 이 땅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이 나올 수 없도록 한국교회는 물론 모든 국민들이 서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홈페이지(http://www.noqueer.com)를 통한 온라인 서명에 주력하는 한편 교회 네트워크를 통해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의 부당성을 알리기로 했으며 거리 캠페인, 학술회의, 세미나, 동영상 홍보, 법률 지원도 함께 논의 및 협력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기사제공: 세기총)

JMS, MBC 상대 소송 패소

향후 전망은 "정명석 교수 신격화 계속될 것"

교계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최근 정명석 교수까지 직접 참여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적잖은 내부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달 25일 JMS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6억

원대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JMS 측은 지난해 3월 27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 프로그램 속 정 교수의 '여신도 100명 성폭행' 부분과 피해자 인터뷰, 세뇌 교육 등 25가지 사항을 문제 삼으며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소송

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송이 적시하고 있는 사실들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JMS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해당 방송으로 인해 JMS 측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정도와 언론의 자유를 비교, 형량했을 때 해당 방송의 사색을 구하는 JMS의 청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탁지원 현대종교 소장은 6일 "교주에게 조금이라도 흠집 날까 우려한 나머지 대부분의 이단은 교주를 소송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데 JMS의 이번 소송은 이례적"이라며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신도들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정 교주가 소송으로 내부 분열을 차단하고, 나아가 재판에서 이겨 성범죄 등 본인의 불명예를 털려왔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원로칼럼



정성구 박사 (전 총신대, 대신대 총장)

주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리라!(3)

언약도들의 순교 정신으로 자유대한민국과 교회를 지킵시다

지금 한국교회 지도자들 가운데도 오늘의 독재적 정치상황에 대해 의견이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로마서 13장의 '모든 사람은 위의 권세에 순종해야 하며, 그 이유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권세 잡은 자가 진리에 어긋나거나 불법과 부정을 자행하거나, 독재적인 방법으로 국민과 교회를 겁박하고 핍박할 때도 그저 순종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국가와 교회, 교회와 국가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날 다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정교분리'의 문제입니다. 이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한국 교회성도들은 '정교분리'를 마치 불변의 진리나 교리로 믿고 있는듯합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들이나 지도자들은 자기는 '중립', 또는 '중도'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정교분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오직 복음전파의 사명과 교인관리를 책임질 뿐 세상의 정치야 죽이 되던 밥이 되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교분리라는 본래의 취지는 미국에서 정권이나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정부로부터 주님의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뜻으로 '정교분리'란 조항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후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 후에 반일사상에 앞장선 목사와 장로들을 겁박하고 선교사들의 말에 재갈을 물려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세뇌시킴으로 '정교분리'정책을 강화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일제당국은 하루 3번씩 천황을 향해 경배하도록 하고 일장기에 경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그들의 식민지정책에 걸림돌이 되는 교회를 말살하고, 모든 국민들을 신사에 가서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이 일본의 '정교분리'정책에 한국교회는 1938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손양원 목사와 박관준 장로 등 50여명은 신사참배 운동에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순교자로 또는 산 순교자로 신앙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이에 반해서 대부분의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고, 국민례의의 일부이다'라는 정부의 거짓말 선전에 속아 넘어가 신사참배에 순응함으로써 치욕스러운 역사를 남겨야 했습니다. 당시 일본정부는 국가절대주의의 사상으로서 정부사책에 걸림돌이 되는 교회를 짓밟고 박해하여 어용(御用)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지도자 여러분, 교회와 국가는 '분리'가 아니고 '구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다는 말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나라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코로나19 방역을 앞세워 나라가 교회를 겁박하고 핍박하고 예배를 통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부패하고 부정부패로 국민을 억압할 때, 우리 교회들은 정권에 저항하고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도록 하는 일에 생사를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교회당 울타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만이 그 모든 영역에 주인이시요,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예가 1638년 2월 28일에 일어난 스코틀랜드 언약도들(Covenanter)의 신앙고백 선언입니다. 당시 국왕 찰스(Charles)는 말하기를 "짐은 국가에도 머리고 교회에서도 머리이다"라고 하자, 칼빈과 존 낙스와 멜빌의 신앙노선을 이어 받은 언약도들 1200명이 에딘버러에 있는 그레이트프라이어스(Greiflairs) 교회 앞마당에 모여, 국왕의 오만한 태도 즉, 국왕이 '교회의 머리'라는 칙령에 항거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라는 신앙고백서를 만들고 모두 서명을 했습니다. 당시 이 모임을 주도하고 앞장서서 인도하신 분은 알렉산더 헨더슨(Alexander Henderson) 목사였습니다. 그렇게 신앙고백을 하고 거기에 서명을 했던 1200명의 성도들은 정부의 박해로 지붕 없는 감옥에 갇혀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모두 순교했습니다.

오늘의 우리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지켜내고, 역사적 신앙고백을 지켜내기 위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은 성경을 파괴하고 교회를 허물어 버리기 위해 정치 공작을 할 뿐 아니라 좌파이데올로기를 교리화해서 목회자와 성도들을 혼미케 하고, 교회파괴 공작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방해가 되는 교회를 해체하고, 분열시키고, 무력화 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주의자들의 철학이요 정책이요 교리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정국으로 우리끼리 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목사와 목사끼리, 교회와 교회끼리 서로의 주장이 다르고, 입장이 다릅니다. 이를 이용해서 정부는 예배를 통제하고, 공무원을 풀어서 감시, 감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큰 위기에 빠져있고,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생 듣지도 보지도 못한 '대면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말로 서로를 향해 비방, 비판하는 형국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국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히 서서 교회가 교회되게, 말씀을 말씀되게, 은혜가 은혜 되는 개혁자들의 뜻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너무 방만하고, 사회와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자책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개교회의 부흥과 성장만을 이유로 이기적이고, 외형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데만 온 힘을 쏟았을 뿐 이웃을 보듬는 일에 부족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독교 세계관, 또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교육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런 비상시국에 우리 모든 목회자와 평신도들은 지금이라도 전열을 가다듬고, 우리의 죄악과 부족을 회개하면서, 재정비할 때라고 봅니다. 결국 철저한 성경적 세계관을 교육하는 시스템이야말로 혼탁한 이 시대의 답이라 할 것입니다. 6·25전쟁 중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처참한 순간, 나라가 공산화되기 일보 직전, 이승만 대통령은 목사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50여명의 목사가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 두 주간동안 한상동, 박형룡, 박운선 목사의 설교를 듣고 놀라운 통회의 역사가 일어난 3월 후 5000/1의 가능성밖에 없던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했습니다.

(계속) skc0727@yahoo.com



“우울증과 영적 치유” (30)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영적 처방: 4. 하나님의 말씀 묵상(상)

우울증을 겪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자기 자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갖지 못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주님과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성경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간을 바쳐야만 가능하다. 그저 읽지만 말고 흥동되는 생각을 알아채고 버리는 것을 익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울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자신의 지혜로 삶을 이해하려 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사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저장할수록 우울증으로부터의 치유를 맞볼 수 있

게 될 것이다.
“내 아들이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듣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잠4:20-27).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한 가지다. 하나님은 여러 방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듣는 것을 익히는 것은 치유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성경을 읽고 있더라도 너무 많은 괴로움을 주는 음성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 마귀가 성경을 읽는 당신의 생각의 방향을 유도할 것이다.

혜, 지식, 이해 및 계시에 의지하고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바를 이해하게 도와주세요. 천사로 저를 둘러싸서 왜곡된 생각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파괴적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소망이나 도움도 없고, 슬픔과 괴로운 심정에 더욱 고통스러울 뿐이다.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혼돈케 하는 음성을 대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당신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날마다, 순간순

한다면 독소로 가득 찬 우울증이라는 열매를 얻게 된다. 하지만 평화와 기쁨, 격려와 위안의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다음은 매일 시간을 보내는 방법과 당신의 사고 행에 어떤 것들을 넣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자기평가서이다.

(1)당신은 문제에 대한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24시간, 심지어 꿈에서도? 혹은 당신이 깨어 있을 때에만? 약 1시간 정도?)
(2)당신은 문제를 이해를 통해서 풀려고 하는가?(대개, 혹은 때때로?)
(3)당신은 문제를 다른 사람

우울해지는 이유는 자기 지혜로 삶을 이해하려 하기 때문 치유의 중요과정은 성경 통해 하나님지시 듣기 익히는 것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 하라,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피라,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

만일 성경책을 읽을 때 혼란스러운 음성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의 죄악 된 사고나 행위에 맞추기 위해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맞추려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게 바로 어떤 사람들은 죄를 범하도록 성경을 해석하려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경 해석하는 방법에 조심해야 한다.

기도: “성령님, 제가 영적 지

간마다 알아야한다. 이는 우리가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낼 때 적이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어둡고 혼란스럽게 하는 생각을 쫓아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각각의 문제와 치료 과정에서 충분히 적용할 때, 뿌연 마음속의 안개가 조금씩 걷히게 될 것이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며 죄악 된 씨를 당신의 마음에 심

의 조연에 의지하는가?(조금, 대개, 혹은 때때로?)
(4)당신의 영적 성장을 돕는 텔레비전 시청이나 책을 읽는 것에 얼마나 시간을 보내는가?(30분, 2시간, 혹은 항상?)
(5)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에 당신은 얼마나 시간을 보내는가?(30분, 2시간, 혹은 항상?)

yonghui.mcdonald@gmail.com

멕시코 대학 한국어반...

(10면에서 계속)

재단이 미국에서 처음에 초청해 간 강사 2명에게는 매달 각각 미화 500달러씩 보조해서 2년간 머물렀다. 현재 강사 3명중 2명은 현지인으로 20대 젊은 여성생이다. 남자 1명은 중장년 교포선교사 출신이다. 모두 헌신적이지만 대학에서는 월 40시간 강의로 250달러를 지급한다.

3. 한국어 강사 배출 방법: “강사양성 프로그램” 후보생들이 거의 준비되었다. 지난 3년간 한국어를 공부해온 8명을 집중 양성하는 것이다. 이들은 2021년 봄 졸업 후 한국 대학에 가서 1년 단기유학이나 Practical Teacher Training을 받고 돌아오면 2년간 UABC 한국어 강사가 되겠다는 약속을 할 수도 있다.

4. 제 2단계 3년계획을 위한 모금운동: 초창기에는 한국어가 멕시코 명문대학에 창설된다는 뉴스에 모두 감격해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지금은 많이 잊혀진 것 같다. 그러나 심심일만 작은 성의라도 표해주면 큰 힘이 되겠으며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재단은 비영리단체로 세금면제가 된다(Tax ID: #82-2837359)

▲문의: 홍연숙 회장
(661)505-3234, yshong333@gmail.com
(기사제공: 은혜한국어재단)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 (P국, 중동선교전략가)

서론 4: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눈에 파악하기(구약)

성경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셨고 또한 말씀하고 계실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워서 못 읽겠고 어려워 배워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읽으려고도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끊임없이 알려하지 않고 그저 설교를 통해 들은 말씀 정도와 알고 있는 성경지식에 더하여 자신의 생각, 경험, 전통 등의 이성적 판단을 섞어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씨를 몰라 문맹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성경이 자신의 언어로 있음에도 알려하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해 힘과 뜻과 정성을 쏟지 않고 인내하지 않으며 헌신하지 않는 것 바로 영적 문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에덴(창1-3장)

1.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로 세워진 에덴은 죄는 없는 곳이었으나 죄를 가능성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천국은 죄도 없으며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는 곳입니다.
2.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천국을 만드신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잠8:22,23). 성경은 창조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3.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간(창3:6)은 사단의 말(창3:4)처럼 육신은 잠시 살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창2:17)처럼 영이 죽은 존재가 되었고 육신도 마침내는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창5:3-5).

이 땅에서 왕이 된 인간의 삶(1)(창4-11장)

1. 이제 원시 하나님의 나라였던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죄인된 인간들(창3:24)의 삶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에덴이 아닙니다. 비록 완전한 곳은 아니었지만 죄와 부끄러움이 없고(창2:25)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부끄러움이 없이 함께하던 에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던 하나님의 거룩한 종(창2:18-25)이 아닙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세상 앞에 왕이 된 스스로가 주인이 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창3:5,22).

2. 왕이 된 백성들은 두려움, 부끄러움, 변명, 비교, 열등감, 분노, 살인, 거짓말(창3:7-4:9) 등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중심적인 인간 본연의 죄의 삶, 자기 이름 드러내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창4:1-24, 6:1-8, 11:1-9).

하나님의 백성의 모형 아, 이, 야, 요(창12-50장)

1.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된 세상에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과정을 말합니다(창12:1-22:19/행7:2-7). 그리고 아브라함과 연합된 이삭의 삶(창22장)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말합니다(시44:22/사53:7/요1:18,29,3:16/히11:8-16).
2. 또한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태어나 up and down을 반복하다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과정을 말합니다(창25:19-35:12). 그리고 야곱과 연합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말합니다(창조).

이 땅에서 왕이 된 인간의 삶

- (2)(출-왕하)
1.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이 세상 애굽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신 후(출 3-14장) 연단의 땅 광야에서(신8:2,3,16/행7:38) 하나님의 율법(레/신)을 주시고 가나안으로 인도(출/민/수)하시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삿-왕하) 그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하십니다(레18:1-5/신28장/렘1:3-5).
 2.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라' 하심(레18:5/신4:40)은 하나님을 떠나 왕이 된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도 '율법을 지키려 의인이 되어 살라하심'도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 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임(갈3:24/롬7:7/약2:10)을 드러내는 과정이 바로 구약 역사서인 것입니다(신29:4-6, 31:20-29).
 3.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사사



하나님나라 모형 에덴...인간 세상에 진정한 왕은 없어 왕이신 하나님 경외하며 진정한 왕이 오시기를 기다려

기의 반복된 악순환을 징검다리 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 왕을 원하는 백성들(삼상8:4-22)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의 3번째 왕인 솔로몬 왕의 범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왕상11:1-12:20).

4. 결국 19명의 왕중 한명도 선한 왕이 없었던 북 이스라엘

이 그 죄악 중에 멸망(왕하 17:1-41)하고 20명의 왕중 그나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4명의 왕, 아사(대하16:1-14), 여호사밧(대하18:1-19:3), 히스기야(대하32:24-26), 요시아(대하35:20-27)도 인간 본연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남유다 역시 멸망(왕하25:1-30)하게 됩니다.

5. 결국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을 통해 드러난 구약 역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끊임없이 거역한 인간의 한계(신9:24/삼상8:8/왕하21:15)를 드러냄으로 구원자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증명해내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열왕기서를 끝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이 땅 역사를 통해 진정한 왕이 없음을 재조명(대상,하)

1. 역대기의 기록은 이미 역사가 열왕기에서 끝난 이후 북이스라엘을 제외한 남유다를 중심으로 창세기(대상1:1)부터 열왕기까지의 역사를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인 유다 지파(대상2:3-4:23)와 다윗 왕(대상11:1-21:30, 29:26-30)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가문인 레위지파(대상6:1-81,

혁을 통해 회복될 진정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전 중심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신 신앙의 삶을 말합니다.

2. 느헤미야서에서는 성전은 있으나 성벽이 무너짐으로 성전이 성전되지 못한 상황을 다시 조명하면서 사단의 방해 중에도 성벽 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신앙의 삶에서 세상과 구별시켜주는 성벽의 역할의 중요함을 필요함을 말합니다.

3. 에스더서에서는 믿음의 성전을 중심으로 그리고 믿음의 성벽을 둘러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구별된 삶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마침내 궁극적인 승리를 이룰 것을 말합니다.

이 믿음의 백성들의 신앙의 승리 기록은 다니엘서에서도 이어질 것이며(단1,3,6장) 이들의 신앙의 고백과 그에 합한 삶을 통해 열국과 열국의 왕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단2:47, 3:28,29, 4:18, 6:26,27).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그 왕을 경외하라(욥-아)

1. 시가서에서는 이스라엘의

찬양하고 경외할 것을(시111:10, 112:1, 115:11) 잠언에서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잠1:7) 전도서에서도 인생의 헛됨과 하나님만 경외받으실 분임을 선포(전12:13)하고 있습니다.

3. 그리고 아가서에서는 그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왕이신 하나님, 바로 신랑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회복될 연합의 사랑을 말합니다(아2:10,16, 6:3, 7:10).

진정한 왕이 오셔야 한다(사-말)

1. 선지서의 두 기둥은 첫째, '책망'과 '심판' 둘째, '구원'과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들에게도 모두 책망이 떨어질 것이고 심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닦치는 책망과 심판은 역사적으로 일시적으로 주어질 것이며 영원 열방을 향한 책망과 심판은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사2:12-22, 13:5-10, 24:1-23/렘4:23-26/겔28:19-23/나1:4-6/합3:3-12/습1:2,3,18, 3:8).

2.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회복'은 1차적으로는 역사에서 포로 귀환을 통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구원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3. 또 한편으로 선지서는 세상 구원자가 아닌 영원한 구원자 메시아를 직접 그리고 간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사11,35,42,53장/렘23장/겔17,34장/단7,9장/호6,11장/욥2장/암9장/욥1장/욥2장/미5장/나1장/합2장/습1장/학2장/속3,8,9,11장/말4장).

4.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율법의 언약, 행위의 언약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인 영원한 언약(렘32:38-41/겔16:60-63/히 8:10, 10:16), 새 언약(렘31:31-34/히8:8-13)을 친히 세우실 것입니다(히10:16).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랑이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히11:8,9).

hfamilifa@g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훈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월)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시6:2-3)

다윗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특히 2, 3절). 너무 힘든 상태를 만나면 자신의 상황을 말할 힘도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내어놓기조차도 힘들어 하고 부끄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늘 솔직하게 자신의 모든 슬픔과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내어놓기 때문에 오히려 놀라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

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심신이 참으로 고통스럽사오니 나의 가난과 슬픔 그리고 나의 비참함과 무가치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공물을 구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랑을 베푸십니다.

화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시6:4-5)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징계를 받게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현재 상태가 너무 힘들어서 이길 수 없음을 솔직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으니가 이제 돌아와 나를 건지시고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 좀 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망 중에

서 누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음부에서 누가 감사할 사람이 있었습니까?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은 고통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시50:15).

수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어(시6:6-10)

신실한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 확신을 갖고 기도하며 결국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기도는 반드시 승리로 끝납니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눈이 근심으로 인해 쇠해졌지만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에게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신실한 성도들을 참소하고 성도들을 낙심시키고 자유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

악된 모습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습 나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모든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시116:1). 할렐루야!

목 여호와여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시7:1)

다윗은 구약에 나타난 많은 신앙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다윗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된 것은 첫째로 다윗은 죄를 범했을 때 신속하고 솔직하게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와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7편은 잘못도 없이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괴로움 속에 하나님께 피하는 "탄원의 시"입니다.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신앙의 모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해치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벧전5:8-9).

금 내가 주께 피하오니(시7:2)

이 광야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있고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격하는 대적이 있습니다. 이 땅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천성을 달려가야 하는 경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 강한 대적이 있습니다. 이것만 알고 살아가도 우리의 삶은 좀 더 진지해집니다. 또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2절).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피한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모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는 억울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사람에게 부딪히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요 복입니다. 주님께 피할 때 가장 안전합니다.

토 다 아시는 하나님(시7:3-5)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유는 원수를 악으로 갚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립니다. 누구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꾸 공격당하면 이성을 잃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자를 같이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께 털어 놓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원수일지라도 악으로 악을 갚지 않습니다. 주님께 피했으니 주님께

만 자신의 억울함을 다 털어놓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양심에 꺼리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COVID-19) 세대를 위한 교회교육 (9)



이희갑 목사

(Azusa Pacific University교수)

교육을 다시 생각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는 우리로 하여금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하였다. 아이들과 하루종일 함께 부대끼는 중에 그동안 학교에 불평만 늘어놓았던 자신이 부끄럽고, 예전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우리아이들에게 잘 대해 주지 않았다고 원망했던 철없는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는 학교가 그동안 얼마나 소중했는지 또 선생님들의 노고가 얼마나 컸는지를 다시 생각했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가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라야 다짐을 하게 된다.

세 가지 교육제도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은 인류 역사상 항상 있어왔다. 학교 교육이 자본주의 질서를 영속화 시킨다며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공교육이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특히 크리스천 학부모들은 학교가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심고 있다면서 공교육

그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셨다.

공교육! 절대 포기하지 말자. 있는 힘을 다하여 지켜 나가도록 하자. 현재 미국 공립학교 교사들의 37%가 크리스천들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공교육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하신다.

둘째는 코로나가 창궐한 이래 아이들이 많은 스트레스와 정서적 어려움에 빠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관계성 회복과 건강한 자아의식이라는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이점에서 기독교 사립학교는 매우 유익한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향후에도 중요한 교육기관이 될 것으로 본다. 어릴 때부터 뚜렷한 자기 존재감을 가지고 소그룹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함께 자라가는 분위기는 기독교 사립학교가 가지는 고유 장점이기 때문이다.

다니엘이 15살 때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이방 나라에 살면서 세상 문화와 구별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는 어릴 때에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하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율법에 기초한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고 어린 나이에 요시왕의 개혁정치가 적극 참여했던 말하자면 당시 기독교 학교에서 믿음으로 무장한 학생이었다. 그러한 믿음의 교육이 평생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루에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게 했던 원동력이 되었다. 당시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는가? 그의 주위에는 많은 우상 숭배자,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로 둘러 쌓여있었다(단6:4).

다니엘 5:4를 보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공립학교, 기독교사립학교, 홈스쿨 각각 이점 있어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은가 먼저 점검하는 게 중요

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기독교 가치를 보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한다. 일견 맞는 말이다.

그러나 필자는 그와 같은 견해에 반드시 동의하지 않는다. 세상 교육제도가 비록 기독교 진리와 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가? 사탄이 망쳐놓은 교육제도여서 아예 기존의 공교육을 대안에서 제외시켜 놓아야 하는가? 필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세상의 공교육도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목적이 남아 있으며 비록 방향이 심각하게 어그러졌을 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목적이 남아있는 한 올바른 방향으로 교육이 진행되도록 영적전쟁을 부단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교육을 받고서도 찬란한 믿음에 우뚝 선 사람들이 많다. 성경에서 모세가 바로 그런 인물이다. 이집트 바로의 딸에게 입양이 되어서 당시로서는 가장 최고의 반기독교적 가치를 가진 이집트 교육을 받고 자라난 그에 대해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다"(행7:22)고 성경은 기록한다. 모세는 성경적 가치가 전혀 배제된 어두운 영적 환경에서 당시 세상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신앙적 가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리라." 그는 세상의 가치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분별해내고 이를 실천한 사람이다. 그러럼 뛰어난 사람이 있었는가? 그는 어릴 때 끌려가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의 3대 왕조에 걸쳐 중용된 사람이다. 어릴 때의 신앙이 이처럼 중요하다. 필자는 우리 자녀들의 역할모델로 다니엘을 서슴없이 꼽는다.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 다니엘을 닮아 아름다운 신앙을 지키기를 기도한다. 셋째는 홈스쿨링이다. 필자는 코로나가 향후 홈스쿨링을 가속화하는 동기로 작용하리라 예상한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부모들은 아이들과 친숙해졌고, 아이들의 교육을 관리하는 나름의 노하우가 축적된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부모님들 중에는 공립학교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들에게 아이들을 맡기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홈스쿨을 시작할 동력을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사실 홈스쿨은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학생 중 약 19만 명이 홈스쿨에 다니는데 이는 2.7%에 해당되는 숫자이다.

성경에는 노아의 세 자녀들은 홈스쿨링을 받았는데 노아의 때나 지금이나 세상 풍조는 그리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15면으로 계속)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세브로트 예비부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터게드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22.성령과 사탄의 가정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성경상 3가지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천사입니다.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마귀)이 되었으니, 사탄도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도 영적 존재이므로 사탄의 영, 즉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고,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가정도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는 가정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가정, 두 가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신 두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요, 다른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려고 듭니다. 마귀가 역

사하는 가정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행합니다. 한 가정에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은 평안하지 못하고 불화와 근심이 떠나지 않고 또 사탄이 공격하면 불행과 사고와 재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가

이 되고 만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 성령의 가정

성령은 사탄의 영, 악령과는 정반대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Holy Spirit)이며, 하나님

성령의 가정-행복, 축복 / 사탄의 가정-불행, 저주

정도 사탄의 공격을 막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므로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충만한 행복한 성령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공격을 막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고 미혹되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탄의 지배를 받는 불행한 사탄의 가정

의 영,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동등한분으로서 지(Knowledge), 정(Emotion), 의(Will)를 가진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을 모신다, 예수님을 모신다' 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분의 가르침과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성령은 '거룩한 영'으로 범죄치 않도록 합니다. 성령은 거듭나게 하십니다(거듭남, 중생, Born Again).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실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위로의 영'으로 '보혜사'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위로자'(Comforter)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회개의 영'으로 찢림과 회개케 합니다. 또한 성령은 기도하게 하고 은혜와 은사 그리고 권능을 주고, 전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예수를 증거케 합니다. 이 같은 성령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 우리 가정이 성령이 충만하고,

을 가집시다! 말씀의 깨달음과 실천으로 변화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의 모임에 힘쓰십시오! 내 믿음의 현주소를 늘 시험하고 확증하는 삶을 사십시오!

2. 사탄의 가정

하늘나라 천국에 3천사장이 있는데, 미가엘이라는 천군의 군대장관이 있고, 정부 대변인격으로 소식과 홍보를 관장하는 가브리엘이 있고, 천국의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비서실장격인 루시엘이 있었습니다. 이 3천사장 중에 루시엘이 가장 높은 천사장이었습니다. 루시엘 천사장이 자기 위치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쿠데타를 시도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다가 패하여 하늘에서 쫓겨나 루시퍼 즉 사탄이 되었고, 그를 따르던 1/3의 천사들도 저주를 받아 마귀 혹은 귀신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는 우리에게 교만을 집어넣어 타락시키고 멸망케 합니다. 이 마귀는 지정의 인격을 가졌고 능력과 권세 그리고 큰 주권과 위엄(유1:9)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를 세상의 왕(요 14:30)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이란 말은 헬라어로 '사타나스'인데, "대적자, 반역자"란 뜻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 쓰여지는 말입니다. '마귀'란 헬라어로 '디아블라스'라고 하는데 "중상자, 비방자"란 뜻입니다. 영어로 "에큐저"(Accuser)라고도 하는데 "참소자"란 뜻입니다. 또 영어로 '아포스테이트'(Apostate)라고도 하는데 "변절자, 배신자, 배교자"란 뜻입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는 잔인한 살인자입니다(요10:10).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요8:44). 마귀의 특성은 도적, 살인자, 잔인함, 거짓말쟁입니다. 마귀의 사역은 도적질하게 하고 잔인하게 죽이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범죄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이같이 마귀가 우리 가정에 들어와 우리 가정을 지배하게 되면 사탄의 가정이 되어 갈등을 하고 이간질하며 싸움을 일으켜 분쟁을 조장하고 별거와 이혼 등으로 분열시켜 가정을 파괴하므로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8면에서 계속) 그러므로 구원하는 지식은 의지의 전적인 의뢰를 포함하기 때문에 단순한 지식과는 다르다. 에임스는 "신앙은 항상 복음에 대한 지식을 전제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지의 행위를 따르고 그 행위에 의존하는 지식이 없다면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하는 지식은 없다"라고 설명한다(1권 3.3-4참고 2권 5.11-16). 이런 입장은 신앙은 지식에서 비롯된다고 말한 17세기 초반에 수립된 정통주의와는 크게 달랐다. 결과적으로 에임스의 신앙과 의지에 대한 입장은 정통 개혁파의 의심을 받았다. 에

임스의 계승자로서 종교개혁 이후 네덜란드의 개혁파 신학과 경건 체계를 발전시킨 지도자인 기스베르투스 보티우스(Gisbertus Voetius, 1589-1676)는 "구원을 의지에 귀속시키는 사상은 이러한 사상을 공개적으로 천명해온 유일한 신학자인 에임스를 제외하고는 개혁파 신학계에서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통주의 개혁파 신학의 범주 안에서 에임스는 "기독교는 성령의 역사로, 활력적이고, 진심 어린 믿음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을 갖게 한다"고 강조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리스도께 부르실 때 사람은 수동적이지만, 영적 은혜의 원리가 사람

의 의지 속에 심겨진다고 한다(엡2:5, 1권 26, 24장). 회심의 문제에 대해 에임스는 지성의 계발이란 먼저 의지의 부패가 극복되어야 하므로 회심을 가져오기 불충분하다고 강조한다. yoonsuklee@hotmail.com

한부모 가정 사역

(8면에서 계속) 성경속의 인물인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야 했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마침내 형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그 중 하나가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아들을 대신하여 종으로 머무르겠다

고 할 때, 더 이상 자신을 팔 때처럼 질투와 이기심이 많은 형제들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때에야 요셉은 형제들 앞에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창45:4-5)라고 말합니다. 이혼의 과정 중에 용서가 힘든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음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적합한 때를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6:15). hyojungyoo2@yahoo.com

코비드(COVID-19)...

(14면에서 계속)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계속 결혼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가 되었다"(창6:4). 용사란 명성이 있는 사람, 권력과 힘을 쥐고 세상을 흔드는 사람, 다시 말하면 노아가 살고 있었던 때 세상의 풍조는 네피림처럼 기골이 장대하고 유명한 사람들, 오늘날 연예인

아이들이거나 금수저로 태어나 자란 아이들로 당시 문화는 그들을 우러러 보았다는 것! 뭔가 오늘날과 비슷하지 않은가? 노아 또한 그의 자녀들을 세상 문화에 따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어찌 없었겠는가? 그러나 그는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집에서 교육하였다. 방주를 만드는 120년간 저 밀

에서 온갖 조롱과 손가락질하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적 가치 앞에 노아와 그의 아내와 자녀들도 흔들리지 않았다. 세상이 주는 가치를 좇지 않고, 세상과 분리시킴으로 그들은 자녀를 성공적으로 양육했던 것이다. 그 아와 그의 아내(우리는 이름을 알 수 없지만)도 놀랐지만 부모의 신앙대로 순종했던 세 아들들도 참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었던 것 같다. 사람들은 어떤 교육기관이 더 성공적인가 물어본다. 천만에! 교육기관을 비교하지 말자. 세 기관 모두 훌륭하다. 중요한 것은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은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그것이 코비드 세대를 아름답게 양육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skc0727@yahoo.com

투고시

새 노래 새 통역판



조의호 목사 (뉴욕성화교회 목사, 시인)

뽕 뽕 뽕 on on on 짹 짹 짹 드류 드류 드류 저녁새 울음소리 통역해 보면 음색은 한 가락 [새상이 슬프네]

아침새 울음소리 다시 통역해 보면 범사에 감사하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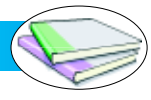
[Bird, Joy comes in the morn]

[주] 시편30:5 "저녁에 울음이 기속해도 아침엔 기쁨이 오리라"는 말씀대로 1분에 1명 사망 큰 골짜기지만 길, 진리, 생명의 주 예수 동행하시면 기쁜 새아침 올 날 바라보며...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Langone Health NYU 의과대학 웨밀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히즈핑거 (His Finger)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출판사 이름입니다. "너는 아느냐" 지은이 김성국

책 소개



“산상수훈” -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표

저자 강기봉 목사

강기봉 목사의 최근 저서 “산상수훈”이 히스핑거(본지 자매 출판사)에서 출간됐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표”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중국어로도 번역돼 책 뒷면에 서부터 반대로 제본돼 있다. 즉 한글에 한국어와 중국어가 모두 있다. 책은 코비드로 인해 미국에는 최근에 도착했지만 중국에서는 이미 배부 중에 있다.

“산상수훈”은 기독교인이라면 대부분 잘 알고 있기에 친밀하다. 그렇기에 한편으로는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본서는 깔끔한 디자인과 제본으로 읽기에 편하고 내용은 신실하다.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 저자 강기봉 목사는 “매년 1-2회 방문하는 선교지의 한 지역에 서 ‘산상수훈’을 몇 회에 걸쳐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 습니다. 뉴욕에 돌아와 준비하는 중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궁극적 창조목적은 누리게 됐 습니다. 이 고귀한 은혜를 저와 선교지만 누리는 것이 아까워 교회(뉴욕백민교회) 주보에 매 주 1-2면씩 별지로 게재했습니다. 약 7개월이 지나면서 90대를 눈앞에 두신 장로님이 ‘책으로 남기지요’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을 내게 됐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책을 준비하던 중 인근교회 권사님(70대 중반)이 ‘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 백성들도 읽게 하지요’라는 권고를 했고 때맞춰 중국어 번역 자원이



하나님 왕국의 실제와 그 윤리적 표준 제시

가 나오게 되고 “산상수훈” 책을 2개 국어로 발행하게 된 것이다.

강 목사는 산상수훈을 연구 하면서 이 보훈은 ‘만국통상어’임을 새롭게 발견했다고 말한

다. “흠으로 지음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이면 누구든 공감할 수 있고, 따라 살아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라며 감격한다.

강 목사는 또 “산상수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며 “예수님의 지상생애가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듣게(마28:19-20)’하는 것으로 정점을 이루 듯, 저의 삶도 복음을 심는데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책은 프롤로그에 이어 제 1장 팔복-그리스도인의 특성(5:3-12), 제 2장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5:13-16), 제 3장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5:17-48), 제 4장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6:1-34), 제 5장 지혜로운 그리스도인(7:1-12), 제 6장 그리스도인의 선한 목표(7:13-27), 제 7장 그리스도인의 권세

마치고 있다.

각 장마다 처음에 본문을 인용 소제목에 따라 차근차근 설명해 나간다. 하나님 왕국의 실제와 그 윤리적 표준을 제시하는 산상수훈, 이를 따라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산상수훈은 그 지표가 된다. 어려운 신학적 접근이 아닌 쉽게 읽을 수 있기에 어려운 이 시기에 마음을 추스르는데 좋은 안내자가 될 듯하다.

또 2권의 책을 준비 중에 있다는 강기봉 목사는 “앞으로 바라는 바는 오늘과 내일을 위한 심계명, 우리의 복 하나님의 부르심, 창세기의 네 인물 등을 중국어와 함께 발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교 현지 방문 문서사역으로도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현실적인 여건이 구비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책은 한글판 103페이지, 중국어판은 80페이지로 총 183페이지다. 책 구입문의는 히스핑거(www.hisfingermall.com) 혹은 저자(kangkibong@hotmail.com)에게 연락하면 된다. 가격은 10달러(우송료 별도).

(유원정 기자)

온라인을 오프라인과 동일 현실로 만드는 리더십!

Careynieuwhof.com, 온라인 사역의 미래 다룬 비대면 서밋 통해 사역의 실제와 전략 소개(하)

온라인도 현실임을 강조하라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고 있던 온라인 영역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더욱 확장돼 이제 삶과 분리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노라 존스 목사도 “미국인들의 75% 이상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약 당신이 사역하는 도시의 75%가 모여 있는 곳이라면 교회지도자로서 당연히 찾아가지 않겠습니까?”라고 도전한다.

온라인 영역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생각 없이 화면만 보고 있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가미해 온라인 영역도 현실감 있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소그룹 모임 중에 미션을 줘서 자리에서 일어나 물건을 가져오게 하거나, 모임에 역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실제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리더는 영상의 조화수에 집중하기보다, 사람들이 언제 콘텐츠를 그만 보고 언제 참여가

끊겼는지 분석해야 한다(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소셜 플랫폼에서 분석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도구를 활용하면 된다). 분석 자료를 보면 누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지, 누가 가장 많이 댓글을 생성하는지 알 수 있다. 그렇게 가장 많이 참여하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축하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댓글 등으로 “가장 많이 참여해주신 10명께 감사를 드립니다!”하고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거나 시상하는 것이다.

온라인 예배 또한 현실이다. 사정상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온

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온라인 영역에 현실감을 불어넣어야 한다.

레비 루스코 목사는 실시간(또는 녹화본 실시간 스트리밍) 온라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나쁘다”며 예배에 오롯이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온라인 예배 음향을 살펴보고 끊임없이

시공간을 초월해 동일한 경험을 하는 데까지 연결 의도적 참여 유발로 양육하며 교회사역 동참하도록

중 하나는 “온라인 예배 음향”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의외로 많은 교회의 온라인 예배 음향이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음향과 시각적 요소는 온라인 영역에서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레비 루스코 목사는 “온라인에서는 특히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이미지와 문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튜브) 알고리즘이 쉽게 바뀌듯,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쉽게 바뀝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뀔 때마다 캐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라며 현실감을 불어넣기 위해 온라인 영역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민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온라인 사역이 오프라인 사역과 동일하게 현실적인(real) 사역을 강조하면 자연스럽게 온라인 사역이 사장되지 않고 발전하게 될 것이다.

캐리 뉴호프 목사는 “언제 일상으로 돌아갈지에 대해 질문하는 분들께 ‘이것이 새로운 일상

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온라인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는 현재 온라인교회를 사용해 사람들이 오프라인 교회건물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목사님들이 사람들을 오프라인 건물을 통해 온라인교회에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그의 말대로 오프라인을 통해 온라인으로, 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건물이 없어도 작은 방에서 만 명을 온라인으로 모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제 오프라인 건물을 사용해 온라인 영역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좋은 온라인 사역자는 온라인 사역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잘 알고 믿는 사람이다. 단순히 기술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not tech-savvy), 사역에 익숙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mission-savvy, people-savvy). 사람들을 온라인 영역에서 연결하고, 의도적으로 참여를 유발하며, 온라인 영역을 오프라인과 동일한 현실로 만드는 리더십을 가질 때, 피할 수 없는 온라인 사역의 고통을 정면 돌파해 정복하게 될 것이다.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국방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I-20 혹은 J-1 Visa
-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 집중특강 및 Online으로 학점취득 가능
-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 타 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 가능

Midwest University 와 함께 동역할 인재를 찾습니다
(부설- MIRI 연구소,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

- 교수 1. 경영, 마케팅, 리더십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 2. 신학, 선교, 목회,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 3. 국방, 항공, 상담 분야와 관련한 박사학위 소지자
- * Full time or Part time - Online Teaching, 전공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할수 있는 분
- 사역 개발 분야 - 산학협력, 인력개발, IT, 마케팅, 항공, 어카운팅과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자
- 자격 1. 미국에서 High School 과 College 졸업 예정자 혹은 졸업자
- 2.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 3. 영주권 스폰 가능
- 4. 관련분야 경력자 선호
- 제출서류 : 이력서, 대학이상 성적 증명서, 자기 소개서
- 제출기간 : November 20, 2020
- 제출처 : jp@midwest.edu